

1. (가), (나) 유물이 처음 사용된 시대에 나타난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 - 널무덤과 독무덤을 만들었다.
- ② (가) - 거푸집을 사용해 세형 동검을 만들었다.
- ③ (나) - 소를 이용하여 밭을 갈았다.
- ④ (나) -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돌을 만들었다.
- ⑤ (가), (나) - 권력을 가진 군장이 백성을 다스렸다.

정답: ④

* 빗살무늬 토기가 사용되던 신석기 시대와 미송리식 토기가 사용된 청동기 시대 모습

(가)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이지만 이보다 앞선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무늬 토기(압인문 토기)도 발견되었다.

(나) 청동기 시대의 유물로는 반달 돌칼, 바퀴날 도끼, 흙자귀 등의 석기와 비파형 동검, 거친무늬 거울 등의 청동기, 그리고 미송리식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등의 토기가 있다. 이들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집터를 비롯하여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등 당시의 무덤에서 나오고 있다.

① 청동기 시대에는 고인돌과 돌널무덤 등이 만들어졌고, 철기 시대에는 널무덤과 독무덤 등이 만들어졌다.

② 철기 시대에 이르러 청동기 문화도 더욱 발달하여 한반도 안에서 독자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청동기 시대 후반 이후, 비파형동검은 한국식 동검인 세형 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그 형태가 변하여 갔다. 그리고 청동 제품을 제작하던 틀인 거푸집도 전국의 여러 유적에서 발견되고 있다.

③ 삼국 시대에 들어서는 철제 농기구를 일반 농민에게 보급하여 소를 이용한 우경을 장려하였다. 백제에서 축력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보습이 4세기 전후 시기에 나타나고, 신라는 지증왕 3년(502)에 “처음으로 소를 밭가는 데 이용하였다”는 기록을 통해 적어도 6세기 이전에는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④ 고인돌은 우리 나라 전역에 걸쳐 분포해 있다. 무게가 수십 톤 이상인 덮개돌을 채석하여 운반하고 무덤에 설치하기까지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고인돌은 당시 지배층이 가진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⑤ 청동기 시대 이후로 청동이나 철로 된 금속제 무기가 사용되며 정복 활동이 활발해졌고, 이를 계기로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분화가 촉진되었다. 그리하여 평등 사회는 계급 사회로 바뀌어 가고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지배자가 나타났는데, 이런 지배자를 족장 (군장)이라고 한다. 족장은 청동기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한 북부 지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2.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 마시며 노래 부르고 춤추니 이를 무천이라 한다. 또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 제사지낸다. 읍락을 함부로 침범하면 노비와 소·말로 변상하는데 이를 책화라 한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음으로 그 죄를 갚게 한다.
- 「삼국지」 위서동이전 -

- ① 읍군이나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 ② 제사장인 천군이 소도를 지배하였다.
- ③ 8조법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다.
- ④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 ⑤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사출도를 다스렸다.

정답: ①

* 초기 국가 동예

함경도 및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옥저와 동예는 변방에 치우쳐 있어 선진 문화의 수용이 늦었으며, 일찍부터 고구려의 압력을 받아 크게 성장하지 못하였다. 각 읍락에는 읍군이나 삼로라는 군장이 있어서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나, 이들은 큰 정치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였다.

동예는 토지가 비옥하고 해산물이 풍부하여 농경, 어로 등 경제 생활이 윤택하였다. 특히, 명주와 삼베를 짜는 등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특산물로는 단궁이라는 활과 과하마, 반어피 등이 유명하였다. 동예에서는 매년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그리고 족외혼(族外婚)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각 부족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다른 부족의 생활권을 침범하면 책화라 하여 노비와 소, 말로 변상하게 하였다.

②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신성지역으로 소도가 있었는데, 이 곳에서 천군은 농경과 종교에 대한 의례를 주관하였다. 천군이 주관하는 소도는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죄인이라도 도망을 하여 이 곳에 숨으면 잡아가지 못하였다. 이러한 제사장의 존재에서 고대 신앙의 변화와 제정의 분리를 엿볼 수 있다.

③ 고조선의 사회상을 알려 주는 것으로 8조의 법이 있었다. 그 중에서 3개 조목의 내용만 전해지는데, 그것은 “대개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이고,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50만 전을 내야 한다”이다. 이를 통하여 당시 사회에 권력과 경제력의 차이가 생겨나고 재산의 사유가 이루어지면서 형벌과 노비도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당시 사회에서는 노동력과 사유 재산을 중요하게 여기고 보호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④ 삼한 중 변한에서는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 왜 등에 수출하였다. 철은 교역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하였다.

⑤ 부여에는 왕 아래에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와 대사자, 사자 등의 관리가 있었다. 이들 가(加)는 저마다 따로 행정 구획인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어서, 왕이 직접 통치하는 중앙과 합쳐 5 부를 이루었다.

3. 다음 자료의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왕 16년, 북한산을 순행하여 국경을 정하였다.
18년, 신주를 없애고 북한산주를 설치하였다.
29년, 북한산주를 없애고 남천주(南川州)를 설치하였다.
- 왕이 크게 인민을 얻어 …… 이리하여 관경(管境)을 순수(巡狩)하면서 민심을 □□하고 노고를 위로하고자 한다. …… 남천군주(南川軍主)는 …… 사탁(沙塔) 굴정차(屈丁次) 나(奈)□이다.

- ① 수도에 동시전을 설치하였다.
- ② 첨성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다.
- ③ 율령을 반포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 ④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 ⑤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

정답: ⑤

* 순수비를 건립한 신라 진흥왕

보기의 자료는 진흥왕의 4개의 순수비 중 북한산비에 관한 것이다.

신라는 6세기 진흥왕(540~576) 때에 이르러 내부의 결속을 더욱 강화하고 활발한 정복 활동을 전개하면서 삼국 간의 항쟁을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진흥왕은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화랑도를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불교 교단을 정비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진흥왕은 고구려의 지배 아래에 있던 한강 유역을 빼앗고 함경도 지역으로까지 진출하였으며, 남쪽으로는 고령의 대가야를 정복하여 낙동강 서쪽을 장악하였다(562).

특히, 백제 성왕과 공동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상류를 확보하고, 다시 한강 전체 패권을 놓고 싸운 끝에 관산성에서 승리한 후 한강 전역을 장악함으로써(554)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전략 거점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황해를 통하여 중국과 직접 교역할 수 있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는 이후 삼국 경쟁의 주도권을 신라가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진흥왕의 정복 활동에 관

한 사실은 단양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북한산, 창녕, 마운령, 황초령)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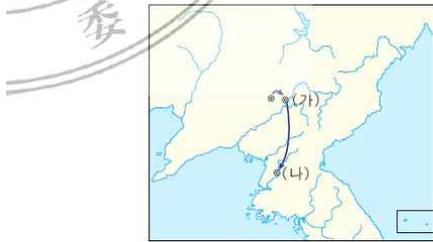
① 신라 지증왕(500~514) 때에 이르러서는 정치 제도가 더욱 정비되어 국호를 신라로 바꾸고, 왕의 칭호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고쳤다. 그리고 수도와 지방의 행정 구역을 정리하였고, 동시전(509)을 설치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우산국(울릉도)을 복속시켰다(512).

② 선덕여왕(632~647)은 신라 최초의 여왕으로 내정에서는 선정을 베풀어 민생을 향상시켰고 구휼사업에 힘썼으며 불법 등 당나라의 문화를 수입했다. 천체 관측 기구인 첨성대와 호국의 의지를 담은 황룡사 9층탑을 건립하는 업적이 있었으나 국방상 주요 거점인 대야성을 백제에게 빼앗기고(642), 상대등 비담과 염종 등이 여왕의 무능을 구실로 반란을 일으키는 등 말년에 시련이 많았다.

③ 법흥왕(514~540)은 병부의 설치, 율령의 반포, 공복의 제정 등을 통하여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또, 골품 제도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새롭게 성장하는 세력들을 포섭하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 함으로써 자주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 체제를 완비하였다.

④ 내물왕(356~402) 때에 신라는 활발한 정복 활동으로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이 때부터 김씨에 의한 왕위 계승권이 확립되었다. 또, 왕의 칭호도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으로 바뀌었다. 한편, 신라 해안에 나타났던 왜의 세력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군대가 신라 영토 내에 머무르기도 하였다(400).

4. (가), (나)를 수도로 삼았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고구려의 수도 변천>

<보기>

- ㄱ. (가) -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하였다.
- ㄴ. (가) - 전진에서 불교가 전래되었다.
- ㄷ. (나) - 위의 관구검에게 침입을 받았다.
- ㄹ. (나) - 당의 침입에 대비해 천리장성을 쌓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국내성(3~427)과 평양성(427~668) 수도 시기의 고구려

㉠ 장수왕(413~494) 때에는 북으로는 흥안령 일대의 초원 지대를 장악하는 한편(유연과 지두우 분할 점령), 중국 남북조와 각각 교류하면서, 대립하고 있던 두 세력을 조종하는 외교 정책을 써서 중국을 견제하였다. 또,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고(427), 뒤이어 백

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하고(475) 한강 전 지역을 포함하여 죽령 일대에서 남양만을 연결하는 선까지 그 판도를 넓혔다. 이러한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진출은 광개토 대왕릉비와 중원 고구려비에 잘 나타나 있다.

㉡ 소수림왕(371~384)은 전왕(고국원왕) 때의 전연과 백제의 침공으로 인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내정에 힘썼다. 율령의 반포, 불교의 공인(중국 북조 전진으로부터 도입), 태학의 설립 등을 통해 지방에 산재한 부족 세력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체제를 강화하려 하였다.

㉢ 동천왕(227~248) 때에 중국은 위·촉·오의 삼국 분열 시대였고, 동천왕은 요동으로 진출하고 하였다. 당시 요동을 지배하던 공손씨를 공격하기 위해 대립관계이던 남조 오와 통교하기도 하였지만 공손씨를 공격하려던 북조 위가 화친관계를 요구하자 곧 돌아서게 되었다. 위와 협력하여 공손씨를 멸망시켰으나 이후 위와 접경하며 긴장관계가 되고 서안평을 선제공격 하였다. 244~245년 2년에 걸쳐 위나라 유주자사 관구검의 침입(244)으로 인한 수도가 함락되는 위기가 있어 옥저로까지 피신하기도 하였으나 위기 밀우(동천왕을 잡으려는 관구검의 별동대 왕기의 추격 저지)와 유유(거짓 항복으로 위군 진영에 들어가 왕기 살해)의 활약으로 간신히 극복하였다.

㉣ 영류왕(618~642) 때에 당 태종은 세계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주위의 여러 나라를 침략하는 한편, 고구려에도 압력을 가해 왔다. 이에 고구려는 랴오허 강 주위의 국경선에 천리장성(631~647)을 쌓고 당의 공격에 대비하였다. 이 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을 비롯한 여러 대신을 제거하였다.

5.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점]



- ①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고분입니다.
- ② 모줄임 천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③ 벽에 그려진 사신도는 도교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④ 봉분 주위에 12지 신상이 조각된 돌레돌이 둘러져 있습니다.
- ⑤ 돌로 널방을 짜고 흙으로 봉분을 만든 굴식 돌방무덤입니다.

정답: ④

* 사신도 벽화가 있는 고구려의 굴식 돌방무덤 강서대묘

고구려는 초기에 주로 돌무지무덤을 만들었으나, 점차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어 갔다. 굴식 돌방무덤은 돌로 널방을 짜고 그 위에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든 것이다. 천장은 대부분 모줄임 천장 구조이고 널방의 벽과 천장에는 벽화를 그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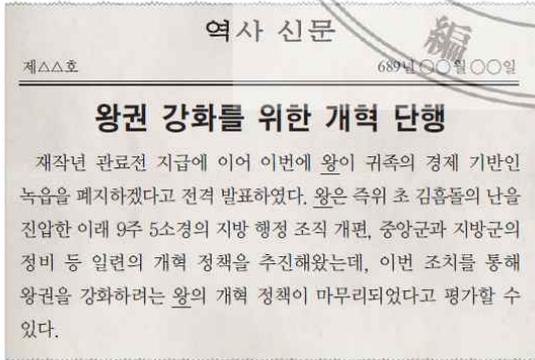
이런 굴식 돌방 무덤은 만주 집안, 평안도 용강, 황해도 안악 등지에 널리 있다. 고분 벽화는 당시 고구려 사람의 생활, 문화, 종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초기에는 주로 무덤 주인의 생활을 표현한 그림이 많이 있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추상화되어 사신도 같은 상징적 그림으로 변하였다.

평양 인근에 소재한 강서대묘는 전형적인 모줄임 천장 구조와 사신도 벽화를 가진 굴식 돌방 무덤이다.

사신도는 도교의 방위신을 그린 것으로, 죽은 자의 사후 세계를 지켜 주리라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 그림에 나오는 현무는 사신도의 하나로, 북쪽 방위신이다

④ 통일 신라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화상이 유행하였고, 고분 양식도 거대한 돌무지덧널무덤에서 점차 규모가 작은 굴식 돌방무덤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봉토 주위를 돌레돌로 두르고, 12지 신상을 조각하는 독특한 양식이 새롭게 나타났다.

6.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
- ② 불교 수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였다.
- ③ 국학을 설립하여 유학 교육을 실시하였다.
- ④ 관리 채용을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 ⑤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여 삼국을 통일하였다.

정답: ③

* 왕권 강화를 꾀한 신문왕(681~992)

문무왕(661~681) 대에 기벌포 전투를 끝으로 나당 전쟁에서 승리하여 삼국통일(676)을 이룬 신라는, 신문왕(681~992) 대에 강화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토대로 왕권을 전제화 하였다.

신문왕은 김흠돌의 모역 사건(681)을 계기로 귀족 세력을 숙청하고 정치 세력을 다시 편성하였다. 중앙 정치 기구와 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9주 5소경 체제의 지방 행정 조직을 완비하였다(685). 또, 문무 관리에게 관료전을 지급(687)하고, 귀족의 경제 기반이었던 녹읍을 폐지(689)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유교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하여 유학 사상을 강조하고, 유학 교육을 위하여 국학을 설립하였다(682).

① 성덕왕(702~737) 때엔 백성에게 정전을 지급하였다(722). 이는 백성들의 사유지를 법제적으로 추인하고, 토지가 없는 백성들에게는 국유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연수유전답).

② 불교가 신라에 전해진 것은 눌지왕(417~458) 때로 보이나, 귀족들의 반대가 심하여 뿌리내리지 못하다가 공식적으로 수용된 것은 법흥왕(514~540) 때에 이차돈의 순교에 의해서이다(527). 순교 당시 목에서 흰 피가 솟아났다는 기이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

④ 원성왕(780~798) 때에는 국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 삼품과를 마련하였다(788). 이 제도는 골품 제도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는 못하였지만, 관직 상한 제한을 극복하고자 하는 6두품의 지지와, 학문과 유학을 널리 보급시키는 데 이바지하였다.

7. (가), (나) 사건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가) 왕 26년, 고구려왕 평성이 예와 공모하여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해왔다.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왕이 장군 주진을 시켜 갑병 3천 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하여 독산성 아래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고구려 군사들과 일전을 벌여 크게 이겼다.

(나) 왕 32년,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보병을 만나 그들과 싸우다가 신라군에게 살해되었다.

- 「삼국사기」, 백제본기 -

- ① 금관가야가 멸망하였다.
- ② 나·당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 ③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하였다.
- ④ 신라가 한강 하류 지역을 차지하였다.
- ⑤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쳤다.

정답: ④

* 백제 성왕 대의 나·제 관계 변화

(가)는 548년 독산성 전투에서 나·제 동맹군의 활약을 보인 것이고, (나)는 나·제 동맹이 결렬되어 백제 성왕이 관성 전투에서 패배 전사한 것에 관한 자료이다.

성왕(523~554)은 대외 진출이 쉬운 사비(부여)로 도움을 옮기고(538), 국호를 남부여로 고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성왕은 중앙 관청(22부)과 지방 제도(5부 5방)를 정비하고, 불교를 진흥하였으며, 중국의 남조와 활발하게 교류함과 아울러 일본에 불교를 전하기도 하였다. 한편, 성왕은 고구려의 내정이 불안한 틈을 타서 신라 진흥왕과 연합하여 551년 일시적으로 한강 유역을 부분적으로 수복하였지만(신라-상류, 백제-하류), 곧 신라에게 하류 지역을 빼앗겼다(553). 이로써 나·제 동맹은 완전 결렬되고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다가 관산성(옥천)에서 전사하고 말았다(554).

① 신라 법흥왕(514~540)은 금관가야를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하였다(532).

② 신라 진덕여왕(647~654) 대에 김춘추의 노력으로 나·당 동맹(648)이 체결되었고, 무열왕(654~661) 즉위 이후인 658년부터 당군은 신라의 청병을 받아들여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하며 660년엔 13만 대군을 백제쪽으로 파견하였다.

③ 백제는 5세기 이후 고구려 장수왕의 적극적인 남하 정책에 밀리다 개로왕(455~475) 대에 한성이 함락되며 한강 유역을 상실하였다. 이에 문주왕(475~477)은 웅진(공주)으로 도움을 옮겼고(475), 이후 대외 팽창이 위축되었다

⑤ 고구려 광개토왕(391~412)은 소수림왕 때의 내정 개혁을 바탕으로 광개토 대왕 때에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고, 이어 신라와 왜·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하여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함으로써 한반도 남부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쳤다(400).

8.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보 기>—
 가. (가)는 선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나. (나)의 복원 과정에서 금제 사리 봉안기가 나왔다.
 다. (다)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었다.
 르. (가) - (나) - (다)의 순으로 만들어졌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르 ⑤ 다, 르

정답: ②

* 고대의 석탑(쌍봉사 철감선사 승탑, 정림사지 5층 석탑, 불국사 3층 석탑)

(가) 쌍봉사 철감선사 승탑(국보 57호): 신라 하대에는 선종이 널리 퍼지면서 승려의 사리를 봉안하는 승탑(부도)과 탑비가 유행하였다. 팔각원당형을 기본형으로 삼고 있는 승탑의 대표로 '쌍봉사 철감선사 부도'(868)가 유명하다.

(나) 정림사지 5층 석탑(국보 9호): 미륵사지 석탑과 백제 시대의 대표적 석탑. 백제를 정벌한 당의 소정방에 의해 속칭 평제탑이라고 불리는 수모를 당하였지만 목조탑 형식을 많이 보존하고 있으면서도 목조건물의 모습이 한층 간결해져 우리나라 석탑 양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다) 불국사 3층 석탑(국보 21호): 8세기 중엽에 세워진 경주 불국사의 대웅전 영역은 묘법연화경(법화경)의 세계를 다보여래(과거불)를 상징하는 복잡하고 화려한 다보탑(국보 20호)과 기단이나 탑신에 아무런 조각이 없어 간소하고 날씬한 석가여래(역사적 불)를 상징하는 석가탑(불국사 3층 석탑, 국보 21호)으로 구현하였다.

1966년 불국사 3층 석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은 8세기 초에 만들어진 두루마리 불경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목판 인쇄물이다.

㉠ 2009년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11호)을 보수·정비하는 과정에서 심주(心柱) 상면 중앙의 사리공에서 금제 사리호, 금제사리 봉안기 등 사리장엄을 발견되었다.

9. 다음 자료의 왕이 재위한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1점]

- 발해의 왕이 말하기를, “흑수말갈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길을 빌려 당과 통교하였다. 그런데 지금 당에 관직을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알리지 않으니 이는 반드시 당과 함께 우리를 공격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어 동생 대문예와 외숙부 임아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흑수를 공격하도록 명하였다. - 「구당서」 -
- 발해의 왕이 군사를 보내 등주를 습격하여 자사 위준을 죽였다. 이에 당은 (신라인) 김사란을 귀국시켜 신라로 하여금 발해를 공격하도록 요구하였다. - 「삼국사기」 -

- ① 인안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② 거란의 침입을 받아 국가적 위기를 겪었다.
- ③ 전성기를 맞이하여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다.
- ④ 5경 15부 62주의 지방 행정 제도를 갖추었다.
- ⑤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겨 체제를 정비하였다.

정답: ①

* 발해 무왕의 업적

7세기 말에 이르러 당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자, 고구려 장군 출신인 대조영(연호: 천통)을 중심으로 한 고구려 유민과 말갈 집단들은 전쟁의 피해를 거의 받지 않았던 만주 동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길림성의 돈화시 동모산 기슭에 발해를 세웠다(698).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719~737, 연호 인안) 때에는 영토 확장에 힘을 기울여 동북방의 여러 세력을 복속하고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발해의 세력 확대에 따라 신라는 북방 경계를 강화하였고, 흑수부 말갈도 당과 연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발해는 먼저 장문휴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 지방(등주)을 공격하는 한편, 요서 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다(732). 이 때 신라는 당의 사주를 받아 김사란을 시켜 발해 남부 국경을 공격하

였으나 추위로 실패하였다(733). 이에 발해는 돌궐, 일본 등과 연결하면서 당과 신라를 견제하여 동북 아시아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어 문왕(737년~793년) 때에는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면서 당의 문물을 받아들여 체제를 정비하고, 신라와도 상설 교통로를 개설하여 대립 관계를 해소하려 하였다. 발해가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용천부)으로 옮긴 것은 이러한 지배 체제의 정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 무렵, 발해는 이러한 발전을 토대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무왕), 대흥, 보력(문왕)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는 9세기 전반의 선왕(818~830)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남쪽으로는 신라와 국경을 접할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고, 지방 제도도 정비하였다(5경 15부 62주). 이후 전성기를 맞은 발해를 중국인들은 해동성국이라 불렀다.

그러나 10세기 초에 이르러 부족을 통일한 거란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오고, 발해 내부에서도 귀족들의 권력 투쟁이 격화되어 발해의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결국 애왕(906~926) 때에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926).

10. 다음 수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각도 감사는 고을마다 연분(年分)을 살피 정하되, …… 총합하여 10분으로 비율을 삼아서, 천실(千實)을 상상년, 9분실(九分實)을 상중년, …… 3분실(三分實)을 하중년, 2분실(二分實)을 하하년으로 한다. 수전과 한전을 각각 등급을 나누어서 모(某) 고을의 수전 모 등년(等年), 한전 모 등년으로 아리게 한다. 1분실(一分實)은 9등분에 포함되지 않으니 조세를 면제한다.

- ① 고려 말 조준 등의 건의로 실시하였다.
- ② 수확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조세를 거두었다.
- ③ 조세 액수는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였다.
- ④ 토지의 비옥도는 상, 중, 하의 3등급으로 구분하였다.
- ⑤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정답: ③

* 세종 대에 마련된 전세 제도 공법(貢法)

세종 때(1418~1450)에 조세 제도를 좀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16년 동안 조정의 신하와 지방의 촌민에 이르기까지 18만 명의 의견을 물은 끝에 공법(貢法)을 마련하였다(1444).

이에 따라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저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①, ⑤ 조선은 신진사대부 등의 건국세력과 관리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고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토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여 건국 직전 조준 등의 건의로 과전법을 실시하였다(1391). 과전법 하에서 조세(엄밀히 말하면 전조)는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데(1결 당 30두), 1결의 최대 생산량을 300두로 정하고, 매년 풍흉을 조사하여 그 수확량에 따라 납부액을 조정하였다.

②, ④ 고려 시대의 조세는 토지를 논과 밭으로 나누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상·중·하의 3등급으로 나누어 부과하였다. 거두는 양은 생산량의 1/10이었다.

* 고려 시대 토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전은 소유권 측면에서는 사전(私田)이지만 수조권 측면에서는 공전(公田)으로 취급하는데, 공전의 수조율은 기존 다수설은 1/4조율이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1/10조라는 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 다음 자료에 나타난 봉기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2점]

- 명학소의 백성 망이·망소이 등이 무리를 모아 공주를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조정에서 채원부와 박강수 등을 보내어 타일렀으나 적(賊)이 따르지 않았다.
- 남방에 도적이 봉기하였는데, 그 중에 세력이 큰 자인 김사미는 운문에 웅거하고 효심은 초전에 웅거하여 떠돌아다니는 자들을 불러 모아 주현(州縣)을 공격하였다.

- ① 신라 부흥을 내세웠다.
- ② 무신 집권기에 발생하였다.
- ③ 몽골의 침입에 항거하여 일어났다.
- ④ 원 간섭기 권문세족의 수탈에 저항하였다.
- ⑤ 임술 농민 봉기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②

* 무신 집권기 하층민의 반란

제시된 자료는 공주 명학소에서 있었던 망이·망소이 형제의 난(1176)과, 운문, 초전에서 있었던 김사미, 효심의 봉기이다(1193).

무신정변으로 고려 전기의 신분 제도가 동요되어 하층민에서 권력층이 된 자가 많았다. 한편, 무신들 간의 대립과 지배 체제의 붕괴로 백성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었으며, 무신들의 농장 확대로 인하여 수탈이 강화되었다. 가혹한 수탈을 견디지 못한 백성은 종래의 소극적 저항에서 벗어나 대규모의 봉기를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서경 유수 조위총이 무신 정권에 반발하여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1174~1176)에 많은 농민이 가세하였으며, 난이 진압된 뒤에도 농민 항쟁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되었다.

이어 남부 지방에서도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다.

공주 명학소에서는 무거운 조세 부담에 시달리던 주민들이 망이, 망소이 형제를 중심으로 봉기하였다(1176). 이들은 한때 충청도 일대를 점령했으며, 개경까지 공격하려고 하였다.

경주 주변 지역인 운문, 초전에서는 김사미와 효심이 신라 부흥 운동을 부르짖으며 봉기하였다(1193).

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는 회유와 탄압으로 약간 수그러들었다가 만적 등 천민의 신분 해방 운동이 다시 발생하였다. 만적은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분 차별에 항거하였다(1198).

③ 몽골의 침입은 1231~1259년, 6차례에 걸쳐서 있었고, 이 때도 하층민의 봉기가 많이 있었으나 하층민들은 몽골과 항전한 경우가 있었다(예: 처인 부곡, 다인철소 주민들의 항전)

④ 원의 간섭기(1270~1356) 때에 대규모의 하층민 봉기는 없었다.

⑤ 임술 농민 봉기(1862)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에 있었던 최대의 농민봉기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다.

12. 밑줄 그은 ‘그’가 활동할 당시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그의 자는 고운으로 신라 왕경(王京) 사랑부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명민하였으며 학문을 좋아하였다. 12세 되던 해 부친의 권유로 당에 유학을 떠났다. 18세에 빈공과에 급제하여 당의 관리로 근무하던 중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토황소격문’을 지었다. 29세 때 고국으로 돌아와 태산군 태수 등을 역임하다가 국왕에게 시무책 10여 조를 건의하였다. 이후 자신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되자 관직을 그만두고 유랑 생활을 하면서 뛰어난 문장과 저술을 남겼다.

- < 보 기 >
- ㄱ. 무열왕의 직계 자손이 왕위를 세습하였다.
 - ㄴ. 호족들이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 ㄷ. 원종과 애노의 난 등 농민 봉기가 일어났다.
 - ㄹ. 의상이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였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최치원이 활동하던 신라 하대(780~935)의 사회상

자가 ‘고운’이고 당의 빈공과에 합격하였고, ‘토황소격문’, 시무 10여조 건의 등을 통해 6두품 출신 유학자 최치원(857~?)임을 알 수 있고 그 시대는 신라 하대이다.

통일 후 번영을 계속하던 신라는 7세기 후반부터 귀족들의 권력다툼에 휘말리게 되었다. 소수의 진골 귀족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왕과 귀족 사이에, 그리고 귀족들 서로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났다. 귀족들이 농장을 늘리고 자신의 군대를 키워 서로 다투었지만, 국가는 이를 통제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권력다툼은 혜공왕 때 시작되었다. 혜공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면서 귀족들의 다툼이 시작되어 결국 혜공왕은 살해를 당하였다(대공의 난, 96각간의 난, 김지정의 난). 이로써 통일 직후 지속되던 무열

왕계의 왕위 세습이 끊어졌다(780년 선덕왕 즉위: 내물왕계). 이후 신라에서는 왕위다툼이 심해져서 150여 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는 큰 혼란이 일어나 왕권이 크게 약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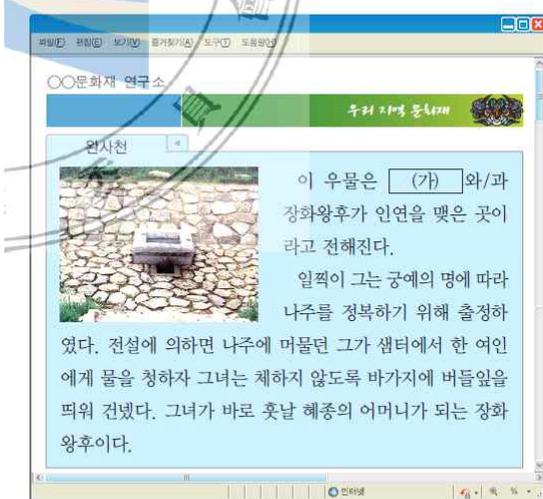
8세기 후반 이후, 진골 귀족들은 경제 기반을 확대하여 사병을 거느리고 권력 싸움을 벌였다. 중앙 귀족들 사이에 왕위 쟁탈전이 치열해지면서 왕권이 약화되고 귀족 연합적인 정치가 운영되었다. 지방 세력(호족)들도 왕위 쟁탈전에 가담하여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되었고,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한편,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으로 국가 재정이 바닥나면서 농민에 대한 강압적인 수취가 뒤따랐다.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중앙 정부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특히 9세기 말 진성 여왕 때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 모순이 증폭되었다. 중앙 정부의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졌으며, 지방의 조세 납부 거부로 국가 재정도 바닥이 드러났다. 그리하여 한층 더 강압적으로 조세를 징수하자, 마침내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상주에서 일어난 원종과 애노의 난(887)을 시작으로 농민의 항쟁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중앙 정부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잃어 갔다.

㊸ 신라 중대(654~780)에 활약한 의상(625~702)은 모든 존재가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화엄 사상을 정립하였다. 의상은 화엄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부석사를 비롯한 여러 사원을 건립하여 불교 문화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 신앙을 이끌었다

13. (가)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5도 양계의 지방 제도를 완비하였다.
- ② 기인 제도와 사심관 제도를 실시하였다.
- ③ 과거 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등용하였다.
- ④ 2성 6부제를 토대로 중앙 통치 조직을 정비하였다.
- ⑤ 전시과 제도를 마련하여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다.

정답: ②

* 고려 태조의 정책

보기의 일화는 고려 태조(재위: 918~943) 왕건의 제2비인 나주 출신 장화왕후 오씨와의 인연 이야기이다.

태봉의 많은 관료들의 지지 속에 왕위에 오른 뒤 태조는 호족이 지나치게 세금을 거두지 못하도록 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세율을 10분의 1로 낮추어 농민의 생활을 안정시키고(취민유도), 흑창(춘대추납)을 설치하여 빈민을 구제하였다. 태조는 이어 태봉의 관제를 중심으로 신라와 중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정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개국 공신과 지방 호족을 우대하여 이들을 관리로 등용하였으며, 공로에 따라 역분전을 차등 지급하였고(940), 유력한 호족과는 혼인을 통하여 관계를 깊게 다져 갔으며(정략 결혼),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하였다

(사정 정책).

또한, 지방 호족을 견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기 위하여 유력 호족 출신 중앙 관료를 출신 주의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 직 등의 일을 맡게 하는 사심관 제도(효시: 신라 경순왕 김부)와 호족의 자제 중 1인을 개경에 보내게 하는 인질적 성격의 기인제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정계와 계백료서를 지어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후대 왕들이 지켜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한 훈요 10조를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태조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욕으로 강력한 북진 정책을 추진하여 평양을 서경으로 삼고, 북진 정책의 전진 기지로 적극 개발하였다. 그 결과,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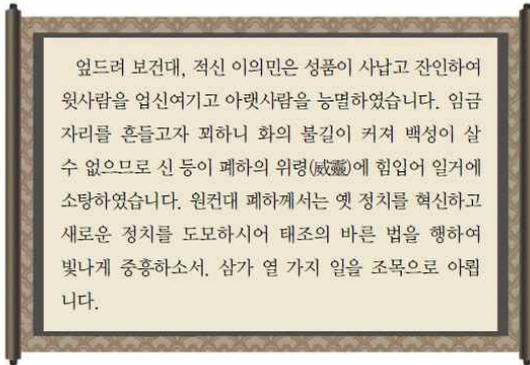
① 현종(1009~1031) 때에 5도 양계제의 성립과 지방 제도가 정비되었다(1018). 즉 5도 양계와 그 아래에 4도호부, 8목에 지방관을 두는 고려 군현제의 뼈대를 확립하였다.

③ 광종(949~975)은 유학을 익힌 신진 인사를 등용하고 신구 세력의 교체를 도모하기 위하여 과거 제도(958)를 처음 시행하였다.

④ 고려 성종(981~997)은 최승로의 건의(시무 28조)를 받아들여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983) 향리 제도를 마련하여 지방 세력을 견제하였고, 중앙 정치는 2성(내사문하성, 상서성) 6부(이.병.호.형.예.공-부)제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 관제를 마련하였다.

⑤ 고려의 관료들에 대한 수조권 분급 토지인 전시과 제도는 경종 때 처음 만들어졌다(976. 시정 전시과,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14. 다음 상소문을 올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이자겸과 함께 난을 일으켰다.
- ②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을 진압하였다.
- ③ 성종에게 지방관의 파견을 건의하였다.
- ④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획득하였다.
- ⑤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정답: ⑤

* 최씨 무인 정권을 세운 최충헌

이의민을 타도하고 정권을 잡은(명종: 1196) 최충헌(1149~1219)은 무신 정권 초기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봉사 10조와 같은 사회 개혁책을 제시하는 한편, 농민 향쟁의 진압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러나 사회 개혁책은 흐지부지되고, 그는 오히려 많은 토지와 노비를 차지하고 사병을 양성하여 권력

유지에 치중하였다.

최충헌은 최고 집정부의 구실을 하는 교정도감(1209)을 설치하여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 사병 기관인 도방을 설치하여 신변을 경호하였다.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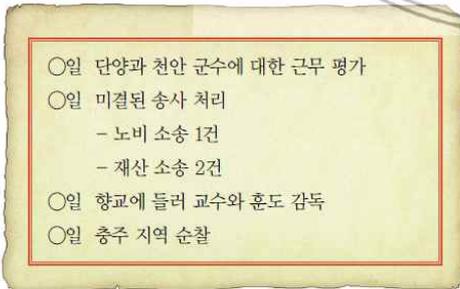
① 이자겸의 권력 독점에 반대한 인종의 측근 세력이 결집하자, 이자겸은 반대파를 제거하고 척준경과 함께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였다(1126). 그러나 이자겸이 척준경에 의하여 몰려나고 척준경도 탄핵을 받고 축출됨으로써 이자겸 세력은 몰락하였다.

② 묘청 세력이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으나(1135), 개경파의 중심 인물 김부식(1075~151)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약 1년 만에 진압되고 말았다.

③ 거란의 1차 침입(993) 때에 서희는 거란의 장수 소손녕과 담판을 벌였다. 서희는 고려의 국호를 통해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강조하고, 고려가 송과의 관계를 끊는 대신, 거란으로 가는 길목인 압록강 동쪽 280리 지역을 돌려받기로 하고 화약을 맺었다. 고려는 이 지역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6성을 쌓아 고려의 영토로 편입하였다(994, 강동 6주).

④ 고려 성종(981~997) 때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올려 유교의 진흥과 과도한 재정 낭비를 가져오는 불교 행사의 억제를 요구하고, 태조로부터 경종에 이르는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잘잘못을 평가하여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다(982).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수용하여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15.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조선 시대 관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였다.
- ② 삼사에 소속되어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였다.
- ③ 도에 파견된 지방관으로 수령을 감독하였다.
- ④ 왕의 대리인으로 현감 또는 현령으로 불렸다.
- ⑤ 6조 판서 중 하나로 관원의 인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답: ③

* 조선 8도의 지방관 관찰사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고을의 크기에 따라 부·목·군·현(또는 주·부·군·현)을 나누어 지방관(수령)의 등급을 조정하고(부윤-종2품, 대도호부사-정3품, 목사-정3품, 도호부사-종3품, 군수-종4품, 현령-종5품, 현감-종6품), 작은 군현을 통합하여 전국에 약 330여 개의 군현을 두었다. 고려 시대까지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부곡, 소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키거나 포함시켰다.

나아가 전국의 주민을 국가가 직접 지배하기 위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였다. 수령은 군사적 겸대 관계 때문에 직급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파견된 지역에 있어서는 왕의 대리인으로, 지방의 행정·사법·군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수령의 권한이 강화되자 이를 감독하는 관찰사는 종2품 당상관으로 높이고 전국 8도에 파견하여 수령들을 감독케 하였으며, 다시 이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하여 수시로 암행어사를 파견하였다.

이처럼 관찰사와 수령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 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시켰다.

② 사헌부(수장: 대사헌-종2품)는 조선의 언론 기관인 3사(홍문관, 사간원, 사헌부)의 하나로서 시정 논의, 백관 규찰(감찰), 기강과 풍속 정립, 억울한 일 해결 등의 기능을 하였으며, 사간원과 함께 양사로서 서경·간쟁·봉박을 담당하여 절대 권력을 비판, 견제하였다.

⑤ 문관의 인사를 담당하는 이조의 장관은 이조 판서(정2품)이다.

16.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왕이 이르기를, “그들은 임금을 능가하는 위세를 빙자하여 나라의 법도를 흔들고, 관리의 임명을 좌우하며 …… 다른 사람의 토지와 노비를 빼앗았다. 다행히 반역의 무리인 기철 등과 간악하고 부정한 무리인 수경 등은 이미 나라의 법대로 처단되었으니, 협박을 받아 그들에게 따른 자는 죄를 묻지 않겠노라. 이제부터는 법령을 준수하고 기강을 정돈하여 온 나라 사람이 모두 새로이 출발할 것을 기약하노라.”라고 하였다. - 「고려사절요」 -



정답: ⑤

* 반원자주 정책을 펼친 공민왕(1351~1374)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공민왕 때의 개혁은 대외적으로 반원 자주를 실현하고,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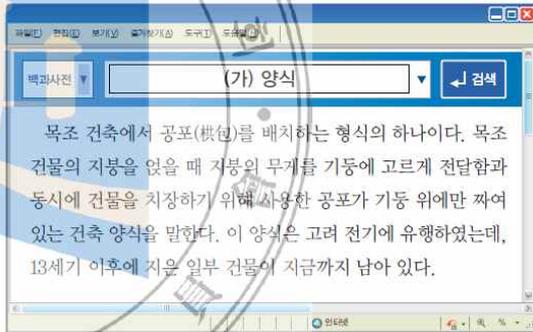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기철로 대표되던 친원 세력을 숙청하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1356). 이어, 고려의 내정을 간섭하던 정동 행정 이문소를 폐지하고, 원의 간섭으로 바뀌었던 관제를 복구하였으며, 이연종의 건의를 받아들여 변발, 호복의 몽골 풍속을 금지하였다(1352). 또, 무력으로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수복하였으며(1356), 더 나아가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하여 지용수와 이성계를 시켜 요동 지방을 공략하였다(1370).

이러한 공민왕의 반원 자주 정책은 친원파 권세가들의 반발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공민왕은 대내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권문세족을 억누르면서 꾸준히 개혁을 추진해 나갔다.

공민왕은 왕권을 제약하고 신진 사대부의 등장을 억제하고 있던 정방을 폐지하였다(1352). 또한 국자감을 계승한 성균관을 순수한 유교 교육 기관으로 개편 하고(1362) 유교 교육을 강화하여 이색, 정몽주, 정도전 등의 신진사대부들이 대거 등장하게 되었다. 아울러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1366), 승려 신돈을 등용하여 권문세족이 부당하게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래의 소유주에게 돌려 주거나 양민으로 해방시켰다. 이를 통하여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재정 수입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공민왕 때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강력한 반발로 신돈이 제거되고(1371), 개혁 추진의 핵심인 공민왕까지 시해되면서 중단되고 말았다.

17. (가) 양식으로 건축된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부석사 무량수전
- ②  성불사 응진전
- ③  개암사 대웅보전
- ④  창덕궁 인정전
- ⑤  평양 보통문

정답: ①

* 주심포 양식의 고려 건축물

고려 전기에는 주로 주심포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13세기 이후에 지은 일부 건물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1363년 중수, 13세기 초 건립 추정)은 가장 오래 된 건물로 알려져 있고,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1376년 중수)과 예산 수덕사 대웅전(1308)은 균형잡힌 외관과 잘 짜여진 각 부분의 치밀한 배치로 고려 시대 건축의 단아하면서도 세련된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고려 후기에는 다포식 건물도 등장하여 조선 시대 건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황해도 사리원의 성불사 응진전은 고려 시대 다포식 건물로 유명하다.

③ 조선 후기 18세기에는 사회적으로 크게 부상한 부농과 상인의 지원을 받아 그들의 근거지에 장식성이 강한 사원이 많이 세워졌다. 논산 쌍계사, 부안 개암사(보물 제292호,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 안성 석남사 같은 사원이 대표적이다.

④ 1405년에 지어진 창덕궁은 본래 이궁(별궁)이지만 1868년 경복궁이 다시 지어질 때까지 경복궁의 역할을 대체하여 임금이 거처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정궁의 역할을 하였다. 이 중 인정전(국보 225호, 다포식)은 창덕궁의 정전(正殿)으로 신하들의 하례식이나 외국사신의 접견장소로 쓰임

⑤ 조선 초기에 지어진 개성의 남대문과 평양의 보통문(북한 국보 2호, 다포 양식)은 고려 시대 건축의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니면서 조선 시대 건축으로 발전해 나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18. 밑줄 그은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적(賊)에게 패한 까닭이 그들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다.'라는 상소에 따라 비로소 이 부대가 설립되었다. 무릇 말을 가진 자를 신기군으로 삼았다. 말이 없는 자는 신보·도탕·경궁·정노·발화 등의 군으로 삼았고, 20살 이상 남자들로 거자(擧子)가 아니면 모두 신보군에 속하게 하였다. 승려를 뽑아서 향마군으로 삼아 다시 군사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 「고려사」 -

- ① 2군 6위로 편제되었다.
- ②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 ③ 일정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였다.
- ④ 무신 정권을 유지하는 사병 역할을 하였다.
- ⑤ 강화도에서 진도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였다.

정답: ②

* 윤관의 별무반 조직

12세기 초 부족의 통일을 이룬 여진족이 고려의 국경까지 남하하면서 고려군과 자주 충돌하였다. 고려는 윤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별무반(신기군·신보군·향마군)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한 다음(1104), 여진족을 북방으로 밀어 내고 동북 지방 일대에 9 개의 성을 쌓았다(1107).

그러나 여진족이 잃은 땅을 돌려주기를 간청하는데다 방비하기도 어려워 9성을 돌려주었다(1109).

별무반은 여진 정벌이라는 목적을 위해 설치된 일시적인 군사조직이므로 이후 계속 존속되었다고 보지 않고 있다.

①, ③ 고려의 중앙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인 2군과 수도 경비와 국경 방어를 담당하는 6위로 구성되었다. 중앙군은 직업 군인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들은 군적에 올라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역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2군 6위의 병(兵)들은 개경 주변의 전업적 군인(일종의 상비군)과 지방의 번상 의무병으로 구성되어 반대급부(급료)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⑤ 최씨 무인정권의 사병으로는 도방과 삼별초가 있다. 경대승 정권 때(1179)에 처음 설치된 도방은 삼별초와 함께 최씨 정권을 유지하는 핵심 군사적 기반이었고, 삼별초가 조직되자, 공적 임무는 삼별초가 맡게 되고, 도방은 오직 사적 임무인 숙위만을 맡게 되었다.

좌·우별초와 신의군(몽골 포로 탈출 출신 병사)으로 구성된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의 역할을 하였지만 몽골과의 항쟁에서 선두에 서서 유격전술로 몽골병을 괴롭혔다. 무신 정권이 무너지고 몽골과 강화가 성립되자 개경 환도를 거부하며 강화도, 진도, 제주도에서 개경정부 및 몽골과 대항하여 항쟁하다 결국 진압되었다(1270~1273).

19.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역사 인물 소개]

이달의 인물, (가) 編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 11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다. 불교 개혁에 앞장서며 교단 통합 운동을 펼치는 등 고려 불교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훗날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는데, 김부식이 추모의 글을 썼다.

- 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 ②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하였다.
- ③ 수선사 결사를 통한 불교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불교 경전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을 편찬하였다.
- ⑤ 이론 연마와 수행을 함께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정답: ③

* 교.선 통합운동을 펼친 의천(1055~1101)

11세기에 종파적 분열상을 보인 고려 불교계에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원효의 통합 불교 사상(일심, 화쟁)을 계승하여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그는 일찍이 송나라에 유학하여 화엄학과 천태학을 공부하였고, 당대의 중국(정원법사)과 인도(천길상)의 고승과 교류하였으며 불교 서적 3000여 권을 가지고 귀국하였으며, 이후에도 요, 송, 일본 등에서도 불교 서적 4,000여 권과 국내의 고서를 모았다.

이후 흥왕사(개경)를 근거지로 삼아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 하였으며, 또 선종을 통합하기 위하여 국청사(개경)를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이를 뒷받침할 사상적 바탕으로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

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관검수를 제창하였다. 이러한 교단 통합 운동은 천태종에 많은 승려가 모이는 등 새로운 교단 분위기를 형성하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던 불교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의천이 죽은 후에 교단은 다시 분열되고 귀족 중심의 불교가 지속되었다.

또한 의천은 초조대장경이 만들어진 얼마 후, 고려는 물론이고 송, 요, 일본 등의 대장경에 대한 주석서를 모아 교장(흔히들 속장경이라 함)을 편찬하였다. 이를 위하여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만들고, 교장도감을 설치하여 10여년에 걸쳐 신라인의 저술을 포함한 4700여 권의 전적을 간행하였다.

개인적 저술로는 현존하지 않는 '천태사교의'주와 낙장본으로 일부 존재하는 '(신집)원종문류', '석원사림' 등이 있다.

① 고려 숙종 때에는 해동통보, 삼한통보, 해동중보, 활구(은병) 등의 많은 화폐가 발행되었다. 이 때 윤관과 대각국사 의천은 대표적인 화폐 유통론자였다. 이는 왕권 강화를 위해 남경 창설을 위한 국가 재정의 확보와 천태종을 중심으로 하는 사원 세력의 재편 기반 및 여진 정벌에 따른 재정 수요를 확충키 위함이었다.

③ 무신 집권 이후의 사회 변동기를 지나며 불교계에서도 본연의 자세 확립을 주창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인 결사 운동이 일어났다. 지눌(1158~1210)은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계의 타락상을 비판하였다.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 운동인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다

20. 지도의 (가)~(다) 국가와 고려의 교역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가)와 경원 개시를 통해 교역하였다.
- ② (가)에서 수입한 주요 물품은 수은, 황 등이었다.
- ③ (나)와의 무역에서 만상이 활동하였다.
- ④ (나)에 수출한 주요 물품은 금, 은, 인삼 등이었다.
- ⑤ (다)의 요청으로 3포를 개항하였다.

정답: ④

* 고려의 대외 무역

(가) 요(거란), (나) 송, (다) 일본

고려시대에는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면서 송, 요 등 외국과 무역도 활발해졌다.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대외 무역의 발전과 함께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대외 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송과의 무역이었다. 고려는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송에서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비단, 서적, 약재 등)을 수입하는 대신에 종이, 인삼 등 수공업품과 토산물을 수출하였다.

거란과 여진은 은을 가지고 와서 농기구, 식량 등과 바꾸어 갔다. 일본은 11세기 후반부터 내왕하면서 수은, 황 등을 가지고 와 식량, 인삼, 서적 등과 바꾸어 갔다. 한편, 서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여 대식국인이라 불리던 아라비아 상인(해로 이용)들도 고려에 들어와서 수은, 향료, 산호 등을 팔았다. 이들을 통하여 고려의 이름이 서방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①, ③ 조선 후기에 국내 상업의 발달과 때를 같이하여 대외 무역도 점차 활기를 띠었다. 17세기 중엽부터 청과의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공적으로 허용된 무역인 개시(중강, 회령, 경원)와 사적인 무역인 후시(중강, 책문, 단속사)가 이루어졌다. 이 때 의주의 만상(灣商)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

⑤ 조선 세종 때에 왜구의 요구를 받아들여 남해안의 부산포, 제포(진해), 염포(울산) 등 3포를 개방(1426)하여 무역을 허용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였다(1443, 계해약조: 세견선 50척, 세사미 200석 이내).

21. 다음 자료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여사언이 아뢰기를, “오랑캐의 실정을 듣자니 누르하치가 흉적(兇賊)을 크게 이긴 뒤로부터 형세가 나날이 강성해져 우리의 서북 지역에 좋지 않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 왕이 “명이 만일 토벌을 나간다면 누르하치를 정벌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니, 이시언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일찍이 여진이 행군하는 것을 보았는데, 호령이 엄숙하고 기세가 날카로웠습니다. 지금 만일 명이 그들의 소굴로 깊이 들어간다면 주객의 형세가 아주 다를 것이니, 신은 크게 염려됩니다.”

- ①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을 분석한다.
- ② 기유약조가 체결된 계기를 찾아본다.
- ③ 조선 통신사의 활동 내용을 살펴본다.
- ④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추진한 배경을 알아본다.
- ⑤ 정도전이 요동 정벌을 주장한 근거를 조사한다.

정답: ④

* 광해군의 중립외교

광해군(1608~1623)은 대내적으로 전쟁의 뒷수습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명과 후금(여진족 누르하치가 1616년 건국) 사이에서 신중한 중립 외교 정책으로 대처하였다. 임진왜란 때 명의 도움을 받은 조선은 명의 후금 공격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고, 새롭게 성장하는 후금과 적대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다.

이에 광해군은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1만 3000 명의 군대를 이끌고 명을 지원하게 하되,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고 상황에 따라 대처하도록 명령하였다. 결국 조·명 연합군은 후금군에게 패하였고, 강홍립 등은 후금에 항복하였다(1619).

이후에도 명의 원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는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였다.

①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00여 년에 걸친 전국 시대의 혼란을 수습하여 통일 국가를 이룬고 불평 세력의 관심을 밖으로 쏠리게 하고 자신의 대륙 진출 야욕을 펴기 위해 조선을 침략하였다(임진왜란).

②, ③ 임진왜란으로 침략을 받은 조선은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에도 막부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쓰시마 섬 도주를 통하여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 왔다. 조선은 막부의 사정을 알아보고 전쟁 때 잡혀간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유정(사명대사)을 파견하여 일본과 강화하고 조선인 포로 7000여 명을 데려왔다(1607). 곧이어 일본과 기유약조를 맺어 동래부의 부산포에 다시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섭을 허용하였다(1609).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에도 막부의 쇼군(將軍)이 바뀔 때마다 그 권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조선에 사절의 파견을 요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통신사라는 이름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⑤ 태조 때(1395)에 표전문(외교문서) 사건으로 인해 명과의 외교 갈등이 벌어지자 당사자로 지목되어 명의 압송 요구를 받은 정도전은 주도적으로 요동 정벌을 추진하였으나(1397), 1차 왕자의 난(1398)으로 이방원(태종)에 의해 제거당하며 중단되었다.

22.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이 성(城)은 서쪽으로는 팔달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의 평지를 따라 쌓은 평산성으로, 성곽의 둘레는 약 5.7km, 성벽의 높이는 4~6m 정도이다.

(가)의 지시로 1794년에 성을 쌓기 시작하여 2년여 만에 완성하였다.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 등 당시의 발달된 과학 기기를 사용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다.

- ① 어영청을 중심으로 복벌을 추진하였다.
- ② 왕권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 ③ 청과의 국경선을 정하여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다.
- ④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역법을 제정하였다.
- 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초계문신제를 시행하였다.

정답: ⑤

* 화성을 건축한 정조(1776~1800)의 업적

부친 사도세자가 참혹하게 죽은 임오화변(1762)을 통해 붕당정치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낀 정조는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히 가리는 적극적인 탕평책을 추진하여 영조 때에 세력을 키워 온 척신과 환관 등을 제거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었던 소론과 남인 계열도 중용하였다. 붕당의 비대화를 막고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고, 규장각을 강력한 정치 기구로 육성하였다.

한편,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여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적 기반을 갖추었다. 더 나아가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또, 수령이 군현 단위의 향약을 직접 주관하게 하여 지방 사림의 영향력을 줄이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 하였다.

특히 정조는 수원으로 사도 세자의 묘를 옮기고 화성을 세워(1794~1796) 정치적·군사적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상공인을 유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 상징적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다. 이 때 정약용의 거중기가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공사비를 줄이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① 효종(1649~1659)은 청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하게 내세웠던 송시열, 송준길, 이완(어영대장) 등을 높이 등용하여 군대를 양성하고 성곽을 수리하는 등 복벌을 준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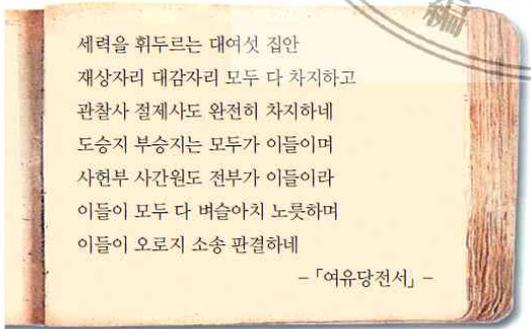
② 태종(1400~1418)과 세조(1455~1468)는 왕권강화를 위해 6조에서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안을 국왕에게 올려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제도인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③ 청은 중원을 차지한 후 그들의 본거지였던 만주 지방에 관심을 기울여 이 지역을 성역화하였다. 그런데 조선인 일부가 두만강을 건너 인삼을 캐거나 사냥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청과 국경 분쟁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 숙종(1674~1720) 때에 조선과 청의 두 나라 대표가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하여 정계비를 세웠다(1712).

④ 조선 후기에 들어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농민은 도망가거나 노비나 양반으로 신분을 바꾸어 군역을 피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이에 군역의 폐단을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영조 때에 군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2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치 상황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화가 발생하였다.
- ② 왕권이 약화되었다.
- ③ 농민 봉기가 빈발하였다.
- ④ 삼정의 문란이 심화되었다.
- ⑤ 매관매직 등의 비리가 만연하였다.

정답: ①

* 세도정치기의 정치 상황(1800~1863)

정조의 탕평 정치로 말미암아 왕에게 집중되었던 권력은 결과적으로 세도정치기의 빌미가 되었다. 정조가 죽은 후 3대 (순조, 헌종, 철종) 60여 년 동안 안동 김씨나 풍양 조씨 같은 소수의 왕의 외척 세력이 권력을 행사한 것이다.

세도정치기에는 왕권이 약화됨은 물론 붕당 정치와 관련된 탕평파와 반탕평파 같은 정치 집단 사이의 대립적인 구도도 없어지고, 중앙 정치를 주도하던 정치 집단은 소수의 가문 출신으로 좁아지면서 그 기반이 축소되었다.

권력 구조에서도 고위직만 정치적 기능을 발휘하고, 그 아래의 관리는 언론 활동 같은 정치적 기능을 거의 잃은 채 행정 실무만 맡게 되었다. 비변사가 핵심적인 정치 기구로 자리잡았으며, 유력한 가문 출신의 몇몇이 실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또한 세도정치 하에서 국가 기강이 해이해지며 관직이 매매되는 등 비리가 만연하였으며, 탐관오리들의 부당한 조세 수탈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였다.

즉 수령 자리가 상품화되며 삼정(전정·군정·환곡의 3가지 세금 행정)의 문란으로 극도에 달한 수령의 부정은 중앙권력과도 연계되어 있어 암행어사의 파견만으로 막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농민은 지배층의 압제에 대하여 종래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과 대결하였다. 처음에는 벽서, 괘서 등의 형태로 나타나던 농민의 항거는 점차 농민 봉기로 변화되어 갔다. 농민의 항거 중에 가장 규모가 큰 것은 평안도에서 일어난 홍경래의 난(1811)과 단성에서 시작되고 곧이어 진주로 파급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농민 항쟁이었다(임술 농민 봉기, 1862).

① 16세기를 전후하여 성종과 중종 대에 향촌 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굳히던 사림은 중앙 정계에 진출하여 권력에 참여함으로써 훈구 세력을 견제하였다. 훈구와 사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4차례의 큰 사화가 발생하였다.

24. 다음 자료에 나타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2점]

요즈음 빈둥거리며 노는 무뢰배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스스로 가게 이름을 붙여 놓고 사람들의 일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가 싼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곧 난전(亂廛)이라 부르면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넣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본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버리게 됩니다.

- ①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 ②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 ③ 해상공국을 혁파하였다.
- ④ 통공 정책을 실시하였다.
- ⑤ 시전에 국역을 부과하였다.

정답: ④

* 신해 통공(1791)

조선은 고려보다도 상업 활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종로 거리에 상점가를 만들었다. 여기에 개경에 있던 시전 상인을 한양으로 이주시켜 장사하게 하는 대신에 점포세와 상세를 거두었다. 시전 상인은 왕실이나 관청에 물품을 공급하는 국역을 부과하고, 대신에 특정 상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았다. 이들 시전 중에서 명주, 종이, 어물, 모시, 삼베, 무명을 파는 점포가 가장 번성하였는데, 후에 이를 육의전이라 하였다. 또, 이들의 불법적인 상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경시서를 두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사상(私商)들이 종루, 칠패, 배오개(이현), 송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시전의 상권을 잠식하자 시전상인들은 국역을 담당하는 대가로 난전을 단속할 수 있는 권리인 금난전권을 행사하였으나 사상(私商)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정부는 정조 때에 통공 정책을 실시하여 육의전을 제외한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하여(1791, 신해통공) 이들의 활동은 다소 위축되었다.

①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에는 서울과 지방에 상평창을 두고 물가조절을 하였다. 그런데 상평창은 조선 시대에 들어서는 의창·사창과 함께 구휼의 3창으로 일컬을 정도로 구휼기관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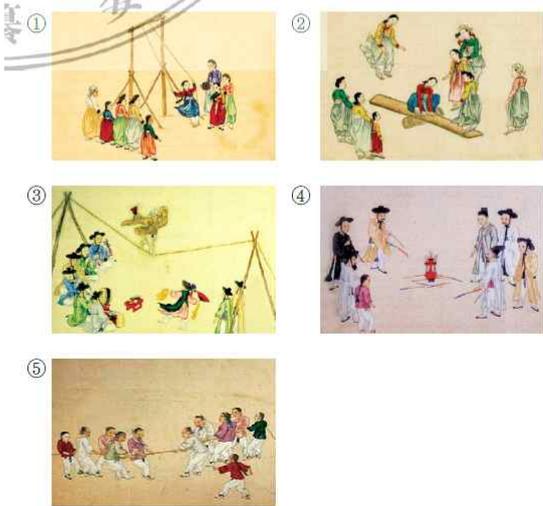
② 흥선 대원군은 경복궁 중건을 위하여 당백전을 발행하였다(1866). 당백전은 모양과 중량이 당시 통용되던 상평통보의 5.6배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당백전 1매의 명목가치는 실질가치의 약 20배(5×20=100배)에 대표적인 악화로 물가상승을 야기하였다.

③ 개항 이후 정부는 외국상인의 불법적 상행위를 막고 불량행상의 폐단을 일소한다는 명목으로 보부양단을 통합하여(좌사:부상, 우사:보상) 해상공국(1883)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특권 아래 자유 상업을 방해하는 폐단이 있어 갑신정변(1884.12) 때에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상리국(1885)과 농상아문(1894) 등에 명칭을 달리하며 이속되다, 시전상인으로 구성된 황국중앙총상회(1898)에 속하였다가 황국협회(1898)로 이속되어 자강개혁 시민단체 독립협회(1896~1898) 탄압에 앞장섰고, 1899년 상무사로 개칭되어 육의전과 보부상이 통합되었다. 이후 진명회(1904, 공진회로 개칭) 등에 이속되었다

25.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민속 놀이로 옳은 것은? [1점]

한 번 굴러 힘을 주며 두 번을 굴러 힘을 주니 발밑의 가는 티끌 바람따라 펄펄, 앞 뒤 좌우 멀어가니 머리 위의 나뭇잎은 몸을 따라 흔들흔들, 오고 갈 제 살펴보니 녹음 속의 붉은 치맛자락이 바람결에 내비치니, 구만장천(九萬長天) 흰 구름 속에 번갯불이 비치는 듯 문득 보면 앞에 있더니 문득 다시 뒤에 있네.
- 「춘향전」 -



정답: ①

* 단오날(음력 5.5)의 민속놀이 그네타기

삼한의 수릿날에서 기원한 단오날이 있는 5월은 옛날부터 비가 많이 오는 계절로 접어드는 달로 나쁜 병이 유행하기 쉽고, 여러 가지 액(厄)을 제거해야 하는 나쁜 달로 보아, 예방조치로서 생겨난 풍습이다.

남자들은 씨름, 태권, 활쏘기를 하고, 여자들은 그네 타기, 수리취떡 먹기, 창포물에 머리 감기 등의 풍습이 있다.

특히 추천(鞦韆)이라 불리우는 그네타기는 오랜 봉건유습에서 내려온 삼간내외법으로 1년 내내 집안에서 바깥 구경을 못하던 젊은 여인들이 단오날 하루만이라도 밖에 나와 해방감을 맛보고자 한 데서 비롯되었다.

- ② 널뛰기(설날과 정월대보름에 한다)
- ③ 줄타기(궁중 연회 등에서 한다)
- ④ 투호(명절 때 하는데 주로 정월에 한다)
- ⑤ 줄다리기(정월 대보름에 한다)

26. (가)와 같이 주장한 붕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점]

대비께서 서거하셨습니다. 효종 대왕이 비록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계승하였으므로 정자로 대우하여 대왕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1년으로 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대왕대비는 효종 대왕의 어머니라서 신하가 될 수 없고 효종 대왕은 둘째 아들이므로 대왕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을 9개월로 해야 합니다.

(가)

- ① 경신환국으로 몰락하였다.
- ② 인조반정을 통해 집권하였다.
- ③ 조식의 학문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다.
- ④ 위훈삭제를 주장한 조광조 일파를 축출하였다.
- ⑤ 정여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정답: ②

* 예송논쟁과 (가)남인과 (나)서인의 충돌

사람이 선조 때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는 후 (1575), 처음에는 동인이 우세한 가운데 정국이 운영되었다. 동인은 정여립 모반 사건 (1589) 등을 계기로 온건파인 남인(이항의 학통)과 급진파인 북인(조식의 학통)으로 나뉘었다(1591). 처음에는 남인이 정국을 주도하였으나, 임진왜란이 끝난 뒤 북인이 집권하여 광해군 때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다.

북인은 서인과 남인 등을 배제한 채 정권을 독점하려 하였고, 결국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 몰락하였다(1623). 서인은 남인 일부와 연합하여 정국을 운영해 나갔다. 서인과 남인은 모두 학파적 결속을 확고히 한 정파들이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서로의 학문적 입장을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상호 비판적인 공존 체제를 이루어 나갔다.

이후 현종 때까지는 서인이 우세한 가운데 남인과 연합하여 공존하는 구도가 유지된 채 붕당 정치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현종 때에 효종의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예송(기해예송-1659, 갑인예송-1674)이 발생하면서 서인과 남인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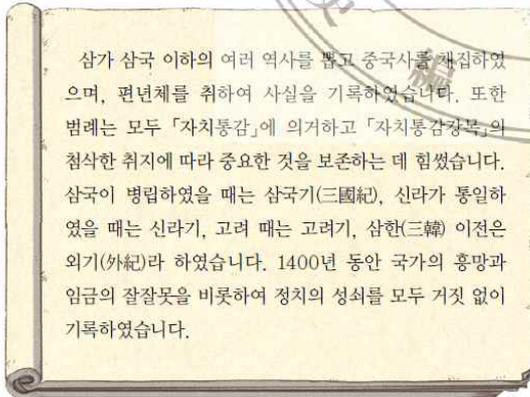
이 때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의 복상문제를 놓고 서인(송시열, 송준길)은 효종이 적장자가 아님을 들어 왕과 사대부에게 동일한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1년설(기해)과 9개월(갑인)설을 주장하였고, 남인(허목, 허적, 윤휴, 윤선도)은 왕에게는 일반 사대부와 다른 예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3년설(기해)과 1년설(갑인)을 각각 주장하여 대립하였다.

기해 예송에서는 서인이 승리하였지만, 갑인 예송에서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숙종 때에 이르러 정국을 주도하는 붕당과 견제하는 붕당이 서로 교체됨으로써 정국이 급격하게 전환하는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특정 붕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화의 추세가 대두되었다. 처음에는 서인과 남인이 격렬하게 대립하였으며 (1680-경신환국:서인집권, 1689-기사환국:남인집권, 1694-갑술환국:서인집권), 나중에는 남인에 대한 처벌을 놓고서 서인에서 갈라져 나온 노론(강경론)과 소론(온건론)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④ 중종 때에 진출한 조광조의 급진개혁(훈구파 위훈삭제, 현량과 실시 등)과 관련하여, 남곤, 심정 등의 훈구 세력은 '주초위왕' 모략으로 조광조와 김정 등의 현량과 출신 사람이 처형시켜 몰아냈다(기묘사화, 1519)

27.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세가, 지, 열전 등으로 구성되었다.
- ② 서거정에 의해 통사 형식으로 편찬되었다.
- ③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 의식이 반영되었다.
- ④ 고려사절요의 편찬 체제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⑤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정답: ②

* 조선 초 편년체 통사서 '동국통감'

태조 때, 정도전은 고려국사(1395)를 편찬하여 고려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고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려 하였다. 이후에도 고려 시대의 역사를 자주적 입장에서 재정리하는 작업은 계속되어 15세기 중엽에 기전체의 고려사(1451, 정인지)와 편년체의 고려사절요 (1452, 김종서)가 완성되었다.

이후 우리나라의 전체 역사를 편찬하려는 노력도 계속되어 성종 때에 동국통감(1485)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정리한 편년체 통사로서, 서거정 등이 편찬하였다.

구성을 보면 단군조선에서 삼한까지는 자료 부족으로 체계적인 서술이 불가능하여 외기(外紀)로 따로 분류하여 책머리에 다루었고, 삼국의 건국부터 신라 문무왕 9년(669)까지

를 삼국기, 669년에서 고려 태조 18년(935)까지를 신라기, 935년부터 고려 말까지를 고려기로 구분하여 서술했다. 신라기를 독립시킨 것은 신라통일의 의미를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다.

또한 범례는 '자치통감'에 따르고, 필삭(筆削)의 정신은 '자치통감강목'을 따라 두 사서(史書)의 체제를 절충하였다.

이 책에는 모두 382편의 사론(史論)이 실려 있다. 사론의 대부분은 사실에 대한 포폄(褒貶), 중국에 대한 사대명분, 강상윤리(綱常倫理)를 존중하는 내용이 많아 성종과 사림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① 기전체란 사마천의 사기와 같이 역사를 본기(황제의 역사), 세가(제후의 역사), 지(사회·경제사), 열전(신하들의 역사), 연표 등으로 나누어 편찬하는 형식으로,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와 조선 초의 고려사(1451)가 대표적이다.

③ 고려 후기에는 민족적 자주 의식을 바탕으로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대두하였다. 이는 무신정변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은 후에 나타난 변화였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한 역사인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은 고구려 건국의 영웅인 동명왕의 업적을 칭송한 일종의 영웅 서사시로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였다.

⑤ 충렬왕 때에 일연이 쓴 삼국유사(1281)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나 전래 기록을 수록하는 등 우리의 고유 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였으며,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여겨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28. (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영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각 고을에서 바치는 공물이 각사(各司)의 방납인들에 의해 중간에서 막혀 물건 하나의 가격이 몇 배 또는 몇 십 배, 몇 백 배가 되어 그 폐단이 이미 고질화되었습니다. …… 그러니 지금 마땅히 별도로 하나의 청(廳)을 설치하여 (가)을/를 시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니, 왕이 따랐다.

- ①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 ②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결당 4두로 고정시켰다.
- ③ 부족한 세액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부과하였다.
- ④ 가호에 부과하던 공납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내게 하였다.
- ⑤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어세, 염세, 선박세를 부과하였다.

정답: ④

* 조선 후기 공납의 개혁 대동법

조선 후기들어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가자, 농민들의 공납(방납)의 폐단을 개선하고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대동법은 경기도에 시험적으로 시행되고(1608, 이원익의 건의), 이어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었다(1708년 완결, 평안.함경도와 제주도 제외).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하여 토산물을 징수하던 공물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쌀, 삼베나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는 제도였다(상공만 폐지, 별공과 진상은 여전히 존속). 주무 관청은 선혜청이다.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곡 12두만 납부하면 되었다. 이 때문에 토지가 없거나 적은 농민에게 과중하게 부과되던 공물 부담은 없어지거나 어느 정도 경감되었다.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공인이라는 어용 상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공인이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구매하였으므로 상품 수요가 증가하였다. 농민도 대동세를 내기 위하여 토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 쌀, 베, 돈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물품의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면서 상품 화폐 경제가 한층 발전하였다.

① 흥선 대원군(1863~1873)은 농민 봉기의 주요 원인이었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양전 사업을 실시하여 은결을 색출하여 전정을 바로잡고, 군역 제도를 양반에게도 군포 부과하는 호포제(동포제)로 개혁하고, 환곡제를 사창제(면민의 공동출자 운영)로 개혁하였다.

② 조선 후기에 전세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는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자 연분 9등법(풍.흉년에 따라 1결당 20~4두)을 따르지 않고, 풍년이건 흉년이건 관계 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이를 영정법이라 한다(1635).

③, ⑤ 조선 후기에 들어 군역의 폐단(군포 징수의 과다)이 심해지자 이를 시정하려는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마침내 군역법이 시행되었다(1750). 이로부터 농민은 1년에 군포를 기존의 2필에서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군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고 하여 토지 1결당 미곡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에게 선무군관이 라는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으며, 어장세, 선박세 등 잡세 수입으로 보충하게 하였다.

29. 다음 주장을 펼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사람 중에 간사하고 함부로 하는 자가 없다면 천하가 왜 다스려지지 않겠는가? 간사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재물이 모자라는 데에서 생기고 재물이 모자라는 것은 농사에 힘쓰지 않는 데에서 생긴다. 농사에 힘쓰지 않는 자 중에 그 중이 여섯 종류가 있는데, 장사꾼은 그 중에 들어 있지 않다. 첫째가 노비(奴婢)요, 둘째가 과업(科業)이요, 셋째가 벌업(閭閻)이요, 넷째가 기교(技巧)요, 다섯째가 승니(僧尼)요, 여섯째가 게으름뱅이이다. - 「성호사설」 -

- ① 역사서인 동사강목을 저술하였다.
- ② 서얼의 신분으로 규장각 검서관에 기용되었다.
- ③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 한전론을 제시하였다.
- ④ 상공업의 발달과 화폐 유통의 확대를 강조하였다.
- ⑤ 양반전을 통해 양반의 무능과 허례를 비판하였다.

정답: ③

* 중농적 실학자 이익

조선 후기 농업 중심 개혁론을 더욱 발전시키고 이를 대표하는 사람은 18세기 전반에 주로 활약한 이익이었다.

그는 유형원의 실학 사상을 계승, 발전시켰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 내 학파를 형성하였고(성호 학파: 안정복, 권철신 등), 이종환,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그는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제도 개혁론으로 백과 사전류의 저서인 <성호사설>의 괄우록에서 한전론(限田論: 한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규모의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한 다음, 영업전은 법으로 매매를 금지하고,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을 주장하고, 나라를 좀먹는 여섯 가지의 폐단(6종: 노비 제도, 과거 제도, 양반 문벌 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익은 서양 천문학에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천행(천동)설을 따르겠다고 했지만, 지구의 자전 가능성을 이야기하였다.

붕당론: 조선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적 모순에서 발생한 이해득실로 양반은 증가하는데 관직은 일정한데에 따른 선비들의 먹이 다름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반의 수와 특권을 제한해야 하고, 양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해야 한다는 사농합일론(士農合一論)을 주장하였다.

소농 보호책: 폐전론(廢錢論), 상공업 억제, 1/10세, 사창제 실시 - 유통 경제의 발전이 농촌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역사 인식: 실증적이며 비판적인 역사 서술(시세론)을 제시하고,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를 체계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민족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특히 단군->기자->삼한(마한)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은 제자인 안정복에게 계승되었다.

① 이익의 제자 안정복(1712~1791)은 '동사강목'을 저술하여 이익의 역사 의식(실증적, 주체적, 단군-기자-마한 정통론)을 계승하였다.

② 정조(1776~1800)는 붕당 뿐만 아니라 신분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였다. 그 결과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등 서얼 출신이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되어 제각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④, ⑤ 중상적(북학파) 실학자 박지원(1737~1805)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전, 허생전 등의 한문 소설을 통해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농업에서도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30.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① 흥보가 등의 판소리가 성행하였다.
- ② 홍길동전과 같은 한글 소설이 읽혀졌다.
- ③ 회회청 안료를 사용한 청화백자가 만들어졌다.
- ④ 권선징악, 기복 등을 기원하는 민화가 유행하였다.
- ⑤ 성현이 음악의 역사를 정리하여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정답: ⑤

* 풍속화가 유행한 조선 후기의 문화 동향

왼쪽: 김홍도의 '무동(舞童)'

오른쪽: 신윤복의 '단오도'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것은 문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글 소설과 사설시조가 대표적이었는데, 이는 문학의 저변이 서민층에까지 확대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최초의 한글 소설인 허균의 홍길동전과 춘향전, 토끼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을 통하여 서민은 자신과 사회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한편, 시조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 선비들의 절의와 자연관을 담고 있던 이전의 시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시조에는 서민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타내는 경향이 나타났다. 격식에 구애됨이 없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설시조 형식을 통하여 남녀 간의 사랑이나 현실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였다.

춤과 노래 및 사설로 서민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어 표현한 판소리와 탈춤은 서민 문화를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판소리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창과 사설로 엮어 가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고 솔직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에 따라 광대가 즉흥적으로 이야기를 빼거나 더할 수 있었고, 관중이 추임새로써 함께 어울릴 수 있어 서민을 포함한 넓은 계층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판소리는 이 시기 서민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탈놀이와 산대놀이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와 함께 성행하였다. 탈놀이는 향촌에서 마을곳의 일부로서 공연되어 인기를 얻었고, 산대놀이는 산대라는 무대에서 공연되던 가면극이 민중 오락으로 정착되어 도시의 상인이나 중간층의 지원으로 성행하였다. 이런 가면극에서는 지배층과 그들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승려의 부패와 위선을 풍자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하층 서민인 말뚝이와 취발이를 등장시켜 양반의 허구를 폭로하고 욕보이기까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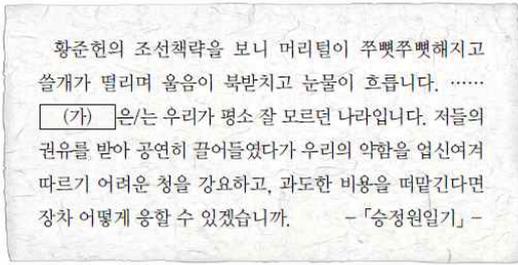
민중의 미적 감각을 잘 나타낸 민화도 유행하였다. 해, 달, 나무, 꽃, 동물, 물고기 등을 소재로 삼아 소원(권선징악, 풍요)을 기원하고 생활 공간을 장식하였다. 이런 민화에는 소박한 우리 정서가 짙게 배어 있다.

③ 조선 후기 자기 공예에서는 백자가 민간에까지 널리 사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회회청 안료를 사용한 청화 백자가 유행하는 가운데 형태가 다양해지고, 안료도 청화, 철화, 진사 등으로 다채로웠다.

⑤ 조선 전기 성종 때에 성현은 악학궤범(1493)을 편찬하였다. 이 책은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무용, 의상 및 소도구까지 망라하여 정리함으로써 전통 음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31.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거문도를 불법 점령하여 러시아를 견제하였다.
- ② 저탄소 설치를 위해 절영도 조차를 요구하였다.
- ③ 강화읍을 점령하고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하였다.
- ④ 윤요호 사건을 빌미로 불평등 조약을 강요하였다.
- 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통상을 요구하였다.

정답: ⑤

* 조선책략과 관련된 나라 중 미국

위의 자료는 영남 만인소 중 미국에 관한 내용이다.

러시아를 막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조선책략은 2차 수신사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었다(1880).

이 책이 지식인층에 유포되면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또한 위정척사 세력(이만손, 홍재학)의 개화 운동 반대와 결합되어 영남 만인소를 야기시켰다(1881)

① 갑신정변(1884.12) 이후, 조선 정부는 청의 지나친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려고 러시아와 외교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세력 확장에 불안을 느낀 영국은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였다(1885~1887).

② 1897년 러시아는 자국 선박의 연료 공급을 위해 절영도(오늘날의 부산 영도) 저탄소 조차를 시도하였으나, 1989년 3월부터 진행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의 이권수호운동으로 인해 좌절되었다.

③ 1866년 병인양요 때 강화도로 쳐들어온 프랑스로부터 강화 행궁에 건립된 외규장각에 보관되던 많은 수의 의궤를 약탈하여 프랑스로 가져갔다.

④ 흥선 대원군 집권 시절인 1868년 일본의 대마도주를 통한 서계를 격식을 문제 삼아 접수 거부하자 일본에서 정한론 대두되었다. 1873년에 고종의 친정으로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 세력이 집권하자 일본은 한반도 침략을 노리며 윤요호 사건(1875)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어 나라의 문을 열었다(1876).

⑤ 병인양요 직전인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평양 대동강에서 군민에 의해 불태워진 사건(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빌미로 1871년 미군이 강화도로 침략했으나 어재연 등의 결사항전으로 물리쳤다(신미양요).

32. 다음 자료의 인물이 주도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이 비는 쓰시마 섬 수선사에 있는 항일 의병장의 순국비이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전라북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켜 정읍·순창 일대를 장악하기도 하였으나, 체포되어 쓰시마 섬으로 끌려왔다. 그는 적(敵)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단식을 계속하다가 순국하였다고 전해진다.

- ①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으로 해산되었다.
- ②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에 항의하여 일어났다.
- ③ 해산 군인이 가담하면서 전투력이 강화되었다.
- ④ 국제법상의 교전 단체로 승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⑤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전개하였다.

정답: ②

* 최익현과 을사의병(1905~1906)

일본의 침략에 맞선 강력한 저항은 의병 활동으로 나타났다. 최초의 의병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시작된 을미의병이었다(1895~1896).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유생들이 주도하고 농민들이 가담한 을미의병은 아관 파천 이후 고종의 해산 권고 조칙이 내려지자 스스로 해산하였다. 그러나 일부는 활빈당에 가담하여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이어나갔다.

의병 항쟁은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조약을 전후하여 다시 일어났다(1905~1906, 을사의

병). 전직 관리 출신인 민종식(1861~1917)은 충청도 홍성 일대를 무대로 전과를 올렸으며, 흥선 대원군 하야 상소와 개항 반대 상소로 유명한 최익현(1833~1906)은 전라도 태인에서 임병찬 등의 제자들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가 체포되어 쓰시마 섬에서 순절하였다. 특히 경상도 일월산을 거점으로 활동한 신돌석(1878~1908)은 평민 의병장으로서 3천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큰 전과를 올렸다.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으로 인하여 정미의병이 일어났다.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여 조직력과 화력이 강화되어 단순한 의병운동이 아닌 조직적인 의병전쟁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13도의 의병이 총 합류하여 각국 공사관에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통보하고 서울로 단번에 진공하는 서울진공작전(1908)을 추진하였으나 지도부의 문제(부친상을 당한 총대장 이인영의 낙향과 신돌석, 홍범도 등의 평민 출신 의병장 배제)로 실패하였다. 대표적인 의병장으로는 이인영, 허위 등이 있다

그럼에도 의병 전쟁은 이후 각 지역별로 활발히 이루어져, 북부 지역에서는 북간도와 연해주에서 두만강을 도하하여 국내로 진공하려는 이범윤, 안중근의 연추 의병 부대(1908.7~9)와 이에 호응하려는 삼수, 갑산 일대의 포수 출신 홍범도, 차도선 부대의 활약이 있었다.

한편 남한에서는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일제가 벌인 1909년의 대규모 군사 작전(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점차 약해졌다. 이에 의병 부대들은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하여 독립군 기지 건설 운동과 독립군 활동을 전개하였다.

33.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당시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위 사진은 전차 개통식과 관련된 것으로 개통식을 구경하기 위해 한성 사람들이 모여든 모습이다. 왼쪽 사진에는 흥인지문 앞에 긴 지붕이 덮인 전차 보관소가 보인다. 오른쪽 사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함께 걸려있는데, 이는 당시 전차가 미국의 기술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 ①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는 여행가
- ② 황성신문을 구입하여 읽고 있는 유생
- ③ 잡지 소년에 실을 원고를 작성하는 작가
- ④ 원각사에서 신극 치악산을 관람하는 관객
- ⑤ 국채 보상 기성회에 성금을 보내는 부녀자

정답: ②

* 전차가 개통된 1899년의 사회상

1899년에 황실과 미국인(콜브란)의 합작으로 세워진 한성 전기 회사는 동대문에 발전소를 세우고 서울에 전등(단, 최초의 전등은 1887년 경복궁 내에 설치되었다)과 전차(1898~1899)를 가설하였다. 전차는 서대문과 청량리 사이를 최초로 운행하였다(1899년 5월 개통).

① 우리나라의 철도는 처음 경인선(1899)에 이어 러·일 전쟁(1904~1905) 중 일본이 군사적 목적으로 경부선(1905), 경의선(1906)을 가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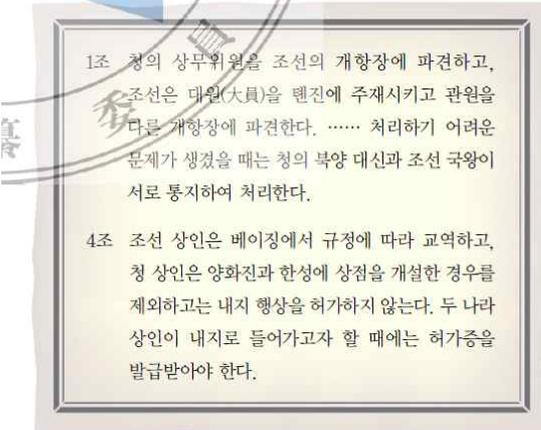
② **황성신문(1898~1910)**: 나수연, 남궁억 등이 설립한 신문. 국·한문 혼용체로 된 일간신문으로 유림층을 주 대상으로 삼았다. 1904년에 일제가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그에 반대한 보안회를 지원하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1905년에 을사늑약에 대해 분노를 토하였던 장지연의 항일 논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하다.

③ **최남선(1890~1957)**은 최초의 문학 잡지인 '소년'(1908)을 창간하고 최초의 신체시인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발표하였다.

④ 1908년 극장 원각사에서 이인직의 '은세계'가 공연되며 신극 운동이 시작되었다.

⑤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일제에 진 빚을 갚자는 운동)은 국채보상기성회를 중심으로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었다(1907).

34. 다음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①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하였다.
- ② 천주교 포교가 허용되는 근거가 되었다.
- ③ 방곡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였다.
- ④ 개화파가 일으킨 정변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 ⑤ 개항장 객주의 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답: ⑤

*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1882.8)

임오군란(1882.6) 때에 민씨 세력은 청에 원병을 요청하였고, 서울에 들어온 청의 군대는 일시 집권한 흥선 대원군을 청으로 잡아갔다.

임오군란을 계기로 민씨 정권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한 청나라는, 그 해 8월 23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을 맺고 조선에 대한 경제침투를 강화하였다(청의 교역량 증가).

서두에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을 명시한 이 장정은, 조선 정부의 비준조차 생략된 채 치외법권은 물론 개항장이 아닌 서울 인근 한강인 양화진(楊花津)과 한성(서울)에 청국인이 점포를 개설할 수 있는 권리, 호조(護照:일종의 여행증명)를 가진 자에게는 개항장 밖의 내륙통상권과 연안무역권까지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도성의 시전상인과

개항장의 객주 및 개항장과 내륙을 연결하는 보부상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밖에도 국경무역에서 홍삼을 제외한 5% 관세, 청나라 기선의 조선 파견권, 청국인의 조선연안 어업권 인정 등 청나라의 특권으로 일관된 불평등조약이었다.

청나라에 의존한 민씨 정권에 의해 체결된 이 장정은 이후에 체결되는 통상조약, 특히 조선과 일본 및 영국과의 조약 개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불평등조약의 체계 확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② 프랑스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때에 수호조규를 곧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청의 이홍장의 소극적 태도와 천주교 포교 문제로 다른 서구 열강에 비해 비교적 늦은 1886년 체결되었으며 천주교 포교도 허용되었다. 즉 명시적으로 포교의 자유를 인정하진 않았지만, 프랑스인의 자격으로 개항지에 정착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여행증명서였던 호조(護照)만 지니면 국내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이 근거가 되었다

③ 1882년 5월의 조미수호통상조약과 8월의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은 1883년 7월의 조일통상장정 개정에 영향을 끼쳐 관세권의 설정, 방곡령 선포 등이 포함된 내용으로 개정하였지만, 일본의 요구로 최혜국 대우 규정도 들어갔다.

④ 급진 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1884.12) 직후 조선은 정변에 관여하여 주권을 침해한 일본에 엄중히 항의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무력을 동원하여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였다. 조선은 한성 조약(1885)을 체결하여 일본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35. (가)~(마)와 관련된 각 시기별 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점]



- ① (가) - 자치 조직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 ② (나) - 4대 행동 강령을 선포하였다.
- ③ (다) - 전봉준의 지휘 아래 관군과 싸워 승리하였다.
- ④ (라) - 탐관오리의 처단 등 폐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 ⑤ (마) - 일본군과 관군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정답: ①

*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양력 기준)

<고부 봉기: 1894.2.17>

- 직접적 원인: 고부 군수 조병갑의 횡포(만석보 저수지 축조 문제)
- 전봉준이 사발통문을 돌려 1천여 명의 농민을 이끌고 고부 관아 습격 → 관리들을 징벌한 뒤 해산
- 정부는 조병갑을 탄핵(후임 박원명)하고 안핵사(이용태) 파견

<1차 봉기>: 1894.4.25 반봉건, 남접 중심

- 안핵사(이용태)가 봉기 관련자를 역적으로 몰아 탄압
- 전봉준(총대장), 김개남, 손화중 등 무장기포(4.25, 재봉기) → 고부 점령 →

각지 동학군 백산 집결(5.4, 백산 봉기, 4대 강령 선포) →

황토현(정읍)에서 감영군 격퇴(5.8), 황룡춘(장성) 전투에서 경군 격퇴(5.25) →

전주성 점령(5.31)

- 정부의 요청에 따라 청군 파견(아산만 상륙 6.8~12) →

텐진 조약 위반을 명분으로 일본군 파견(인천 상륙 6.7~12)

- 전주 화약 체결(6.11): 동학 농민군은 외국군대 철수와 폐정 개혁을 조건으로 정부와 화친 →

집강소 설치(6.11) → 일본의 궁성 침입(7.23)

<집강소 시기: 1894.6.11.~10.10>

- 전라도 각 고을에 설치한 동학 농민군의 자치 기구
- 폐정 개혁안 실천 → 불량한 지주와 부호 처벌, 신분 질서 해체, 치안 유지

<2차 봉기: 1894.10.11.~12.31>, 남접+북접, 항일구국투쟁

- 일본이 경북궁을 점령하고 내정간섭, 개혁강요 →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
- 남접(전봉준)·북접(손병희) 연합부대 형성(논산에 대본영 설치): 11월 초
- 전봉준이 이끄는 주력 부대가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퇴(12.11~18) → 전봉준 등 동학 지도자 체포(12.30)

36.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난병이 창덕궁에 밀어닥쳤는데, 수문장 등이 이들을 막아내지 못하여 궐내에 난입하였다. 왕은 급히 대원군의 입궐을 명하였다. 대원군은 곧 무위대장을 동반하여 입궐하였다. …… 서상조가 아뢰기를, “근래 듣자니 증전께서 변란에 대처하시어 누추한 곳에 은신해 계신다고 하니, 삼가 바라건대, 수소문하여 의장(儀裝)을 갖추고 예법에 따라 왕후의 자리로 맞아들이소서.” 하니, 왕이 “널리 찾아서 맞아들이는 일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였다.

- ① 흥범 14조가 발표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②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계기로 일어났다.
- ③ 구식 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 ④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유생에 의해 주도되었다.
- ⑤ 일본과 한성 조약을 체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정답: ③

* 임오군란(1882.6)

개항 후 일본 상인의 대량 수입으로 점차 쌀이 부족해지는데다가, 때마침 1882년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하층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져 갔다.

한편, 신식 군대인 별기군에 비하여 구식 군인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열악하였다. 심지어 민씨 일파 등 집권층의 부패로 구식 군인에게 13개월 만에 월급으로 지급한 쌀에는 겨와 모래가 섞여 있었다. 이에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불만을 품었던 구식 군인들은 마침내 선혜청을 습격하며 임오군란을 일으켰다(1882.6).

구식 군인들은 흥선 대원군을 찾아가 지지를 요청했으며, 정부 고관들의 집을 부수고 일본 공사관을 습격하였다. 이 와중에 별기군의 일본인 교관이 죽었다.

그 후 서울의 하층민들이 가세하여 세력이 더욱 커지자, 구식 군인들은 왕궁을 습격하고 민씨 일파 등 고위 관리들을 처단하였다.

군인들이 궁궐에까지 침입하자 민비는 종적을 감췄고(장호원 피신) 고종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흥선 대원군에게 정권을 맡겼다.

그러나 민씨 일파로부터 군대 파견을 요청받은 청은 일본의 무력 개입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군대를 출동시켜 군란을 진압했으며, 군란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자국으로 납치해 갔다.

일본은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여 군란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굴복한 정부는 제물포 조약을 체결하여 사과 사절단의 파견, 주모자 처벌, 배상금 지불, 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주둔 등 일본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았다.

① 제2차 갑오개혁(1894.12~1895.7)이 추진될 때 고종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내정 개혁 및 자주 독립을 선포하는 독립 서고문을 바치고, 국정 개혁의 기본 강령인 흥범 14조를 반포하였다(1894.12).

②, ⑤ 급진개화파들이 일본을 힘입어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는 갑신정변은 우정국 개국 축하연을 이용하여 일어났으나 청군의 진압으로 실패 하였다. 그런데 일본은 정변 때 죽은 일본인에 대한 배상과 불에 탄 일본 공사관의 신축비 보상을 요구하여 조선은 한성 조약(1885.1)을 체결하였다.

④ 러시아를 막는 방책인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을 담은 책인 ‘조선책략’이 2차 수신사(1880)로 다녀온 김홍집의 소개로 국내에 유포되며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조선에서는 미국과의 수교를 고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또한 위정척사 세력(이만손, 홍재학)의 개화 운동 반대와 결합되어 영남 만인소를 야기시켰다(1881)

37. (가), (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 (가) ○ 대한 제국 정부는 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 대한 제국 정부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 기타 중요한 안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미리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 (나) ○ 대한 제국 정부는 시정 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을 것
○ 대한 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대한 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

- ① (가) - 일본인이 정부의 차관으로 부임하는 배경이 되었다.
② (가) - 화폐 정리 사업을 추진한 메가다가 고용되는 근거가 되었다.
③ (나) -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④ (나) - 일본이 군사상 필요한 지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가), (나) - 러·일 전쟁 기간 중에 체결되었다.

정답: ②

* 1차 한일협약(1904.8)과 한일 신협약(1907.7)

삼국간섭 이후 러시아의 세력이 커지면서 일본과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일제는 이 때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과 제1차 영·일 동맹(1902)을 체결하여 국제적 입지를 강화한 후, 한반도 지배권을 둘러싸고 러시아를 선제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러·일 전쟁, 1904.2~1905.9).

이에 대한 제국은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으나, 일제는 이를 무시하고 한·일 의정서(1904.2)를 강제적으로 체결하여 정치적 간섭과 군사적 점령을 꾀하였다. 그리고 이에 의거하여 제1차 한·일 협약(1904.8)을 체결하여 외교(스티븐슨), 재정(메가타: 화폐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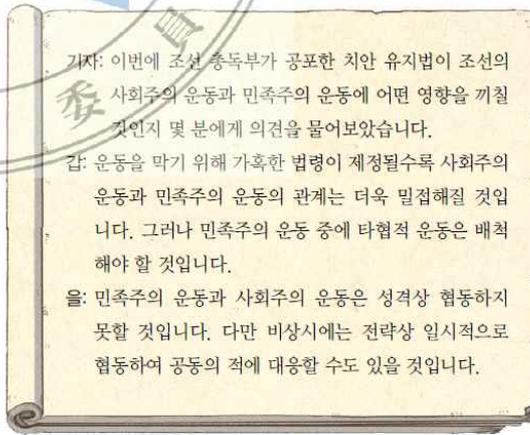
사업 추진) 등 각 분야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을 두어 한국 내정을 간섭하였다. 일제는 미국과는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7), 영국과는 제2차 영·일 동맹(1905.8)을 맺은 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자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1905.9)을 체결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을사조약을 발표하여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를 설치하여 보호국으로 하였다(1905.11).

그러나 고종은 을사조약 체결이 무효임을 선언했으며, 국제 사회에 독립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호소하였다. 특히, 미국에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상호협력 조항을 근거로 헬버트를 특사로 파견하여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제2차 만국 평화 회의가 열리고 있던 네덜란드 헤이그에 이상설, 이준, 이위종을 특사로 파견하여 을사조약이 무효임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다(1907). 그러나 이러한 고종 황제의 외교적 노력은 열강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하고 있던 세계 정세 아래에서 성공을 허두지 못하였다.

일제는 헤이그에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1907.7). 이어 한·일 신협약(정미 7조약)을 체결하여 한국 정부의 각 부에 일본인 차관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였으며, 군대마저 해산하고 실질적으로 한국을 지배하였다. 그리고 전국적인 의병의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고(남한 대토벌 작전: 1909.9~10) 사법권(기유각서: 1909.7) 과 경찰권(1910.6)을 빼앗은 다음, 친일 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대한 제국을 일본에 합치자는 각종 청원서나 성명서를 발표하게 하였고, 결국 대한 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한일병합: 1910.8).

38.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 일제의 통치 정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한국인이 발행하는 신문을 검열하였다.
- ② 공출제를 실시하여 미곡을 강제로 거두었다.
- ③ 조선 태형령을 제정하여 한국인을 탄압하였다.
- ④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강요하였다.
- ⑤ 농민 경제의 안정화를 명분으로 농촌 진흥 운동을 실시하였다.

정답: ①

* 좌우합작 운동이 추진된 1920년대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 협동 전선(민족유일당)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2.)

① 3.1 운동 이후 1920년대 일제는 문화통치를 실시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1920)을 허용했으나 수시로 검열·삭제를 하였다.

②, ④ 일제는 중일전쟁(1937) 직후 총동원령을 선포(1938)하고 이후 1940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면서 인적·물적 자원의 수탈을 더욱 강화하였다. 물자 부족이 심화되자 미곡 공출(1940)과 금속공출(1942)을 실시하여 광물 자원의 약탈은 물론 학교의 철문이나 집안의 손가락까지 강제로 빼앗아 갔다

또한 이 시기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 하려는 황국 신민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제는 내선 일체의 구호를 내세워 우리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성과 이름까지 일본식으로 고쳐 쓰도록 하고(창씨 개명: 1939), 황국 신민 서사 암송, 궁성 요배, 신사 참배 등을 강요하였다.

③ 1910년대 무단통치기에 존속하였던 조선 태형령(1912)은 조선인에게만 적용되는 야만적인 형벌로 1920년 폐지되었다.

⑤ 일제는 1932년~1940년 사이에 농촌진흥 운동을 실시하였다. 이 운동은 당시 세계 경제 대공황과 기존의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 계획 등으로 농촌경제의 몰락에 따른 소작농 및 농민들의 사회불안 억제와 소작농, 농민들의 불만 및 각종 소작쟁의 운동 활성화를 통제하는 한편, 본격적인 중국대륙 침략전쟁을 앞두고 '황국신민화' 정책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전개하였던 일종의 사회 교화운동이었다.

39. 다음 공판 기록과 관련된 민족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문: 피고는 금년 4월 2일 안성군 읍내면 장거리 시장 등에서 독립 만세를 외치고 독립 운동을 한 사실을 아는가?
 답: 시장에 가서 비로소 알았다.
 문: 손병희 등이 독립 선언을 발표한 결과 각지에서 시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들었는가?
 답: 말로만 들었다.
 문: 시장에는 몇 사람이 모였는가?
 답: 상당히 많은 사람이 모여서 잘 모른다.

- ①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일어났다.
- ②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③ 언론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전개되었다.
- ④ 한국인 본위의 교육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주장하였다.
- ⑤ 학생이 주도한 1920년대 최대 규모의 항일 운동이었다.

정답: ②

* 3.1운동(1919)

... 손병희 등이(민족대표 33인) 독립선언을 발표한.... 등을 통해 3.1 운동임을 알 수 있다.

강점 이후 일제의 무단 통치로 세력이 크게 위축되었던 민족 지도자들은 제1차 세계 대전 종전과 함께 제창된 민족 자결주의와, 도쿄에서 일어난 2·8 독립 선언에 고무되어 독립 운동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 대표(종교 지도자) 33인의 이름으로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국내외에 독립을 선언하였다(1919. 3.1).

서울에서 시작된 만세 시위 운동은 고종의 국장(인산일)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군중들과 학생, 종교인, 상인, 노동자가 참가하면서 점차 지방 도시로 확산되었고, 뒤이어 전국 각지의 농촌으로 파급되었다. 비폭

력 운동으로 시작된 만세 시위는 차츰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동양 척식 주식 회사 등 식민 통치 기관, 친일 지주 등을 습격하는 무력적인 저항 운동으로 바뀌어 갔다. 또, 3·1 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어 만주와 연해주, 미국, 일본 등지에서도 국외 동포에 의해 시위가 전개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온갖 무력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탄압하였다(유관순 순국, 제암리 교회 학살).

3·1 운동은 전 민족이 참여한 대규모의 독립 운동으로서,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을 한 차원 높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 또, 우리 민족에게 독립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국내외에 민족의 주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외 항일무장투쟁, 사회주의와 여성 운동 등 다방면의 민족 운동이 전개되었을 뿐 아니라, 세계 약소 민족의 독립 운동(중국의 5.4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 등)에 큰 자극이 되었다.

①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삼아 일어난 민족운동은 1926년의 6.10 만세운동이다.

③ 1907년 서상돈, 김광제 등의 주도하에 대구에서 시작된 국채 보상 운동은 각종 계몽 단체와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만세보 등의 언론 기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호응을 받으며 전국 및 해외(일본 유학생 및 러시아 교민도 참여)로까지 확산되었다.

④, ⑤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은 학생들이 앞장서고 시민·노동자들이 참여한 3·1 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 민족 운동이었다. 시위가 확대되어 가면서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시', '식민지 교육 철폐' 등을 내걸었던 초기의 투쟁 구호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내세우며 일제의 식민 통치를 부정하는 내용으로 발전하였다.

40. 밑줄 그은 '이곳'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2점]



민족의 최고 가치는 자주와 독립이다. 이를 수호하기 위한 투쟁은 민족적 성전이며, 청사에 빛난다.…… 1910년 일본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당하자 국내외 지사들은 이곳에 결집하여 국권 회복을 위해 필사의 결의를 다졌다. 성명회와 권업회 결성, 한민학교 설립, 신문 발간, 13도 의군 창설 등으로 민족 역량을 배양하고…… 대일 항쟁의 의지를 불태웠다. -○○○기념탑 비문-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정답: ②

* 연해주(신한촌: 블라디보스토크) 지역

(가) **밀산부**: 러시아와 만주의 접경 도시인 밀산에는 이상설, 이승희 등에 의해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이 건설되었다.

(나) **연해주(신한촌)**: 1860년 이후 많은 동포들이 이주해 살고 있던 러시아령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1910년 6월과 8월 유인석, 이범윤 등이 중심이 되어 13도 의군과 성명회(聲鳴會)가 설립되었으나 동년 9월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1911년 독립운동 기지인 신한촌과 이를 기반으로 자치조직인 권업회(勸業會)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의 경제 기반을 마련하고 학교와 도서관을 설치하였으며, 기관지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으나, 이 역시 대일 관계 악화를 우려한 러시아의 압력으로

해체되었다. 이상설, 이동휘 등은 1914년 대한 광복군 정부를 조직하여 군사 활동을 준비하였으나, 일제와의 관계 악화를 꺼린 러시아가 독립군의 무장 활동을 탄압했기 때문에 본격적인 활동은 어려웠다. 이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자 연해주에서는 전로한족대표자회의(1917)가 설립되어 한인신보 등을 간행하며 독립운동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다, 3·1 운동 직후 임시 정부 형태의 대한 국민의회(1919.3)로 발전하였다. 한편, 이동휘 등에 의해 한인 사회당(1918)이 조직되어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 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 **북간도**: 용정촌, 명동촌 등 많은 한인 집단촌이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애국지사들은 간민회 등 자치 단체를 만들어 동포 사회를 이끌어 가면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간민회는 민족 교육과 한인들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북간도 한인 사회의 형성과 단결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 서전서숙(이상설), 명동 학교(김약연) 등 민족 학교를 세워 철저한 민족 교육을 실시하였다. 북간도로 거점을 옮긴 대종교에서도 중광단이란 무장 독립 단체를 만들고 사관 양성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발전하였다.

(라) **서간도(또는 남만주)**: 신민회 회원들이 독립군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회영, 이상룡 등이 중심이 되어 삼원보에 민족운동 단체인 경학사를 조직하고 신흥 강습소(후일 신흥 무관 학교)와 같은 군사 간부 양성소를 설치하였다(1911). 특히 신흥학교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어 백서농장을 건설하고 독립군을 편성, 훈련하였다. 경학사는 뒤에 부민단, 한족회로 발전하면서 독립군(서로 군정서)을 조직하였다

(마) **상해**: 1918년 김규식 등에 의해 신한청년당이 창설되어 임시정부 수립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4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책의 시행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소유 신고를 명심하시오

경성부 관내에서는 임시 토지 조사국의 통첩에 따라 지난 9월 1일
까지 토지의 소유 신고를 제출하라고 반포하였다가 12월 말일까지로
그 기한을 연장하였다. 사람들이 아직 기한이 멀었다고 관망만하
지만, '만일 제출하지 않는다면 후회가 없지 않을 것'이라고 모
당국자가 말하였다. - 매일신보 -

- 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이 늘어났다.
- ② 소작농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되었다.
- ③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 배급제가 실시되었다.
- ④ 한국으로의 일본인 농업 이민이 촉진되었다.
- ⑤ 동양 척식 주식 회사 소유의 농지가 증가하였다.

정답: ③

* 토지조사사업(1910~1918)

조선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 창설, 1912년 '토지 조사령'을 공포하여 토지 조사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 법령에 따르면 토지 조사 사업은 정확한 측량을 바탕으로 지세 부담을 공평하게 하고, 소유권을 확정하여 토지의 매매와 양도를 원활하게 하며 토지의 개량과 이용을 자유롭게 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러나 실제 토지 조사 사업은 소유권 미확인 토지나 은결을 파악하여 식민지 통치를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지세부과 대상을 크게 늘리고 토지 가격을 높이 책정하여 토지세를 더 많이 거두어들였다(지세령). 이렇게 거둔 토지세의 대부분은 식민 통치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또한 토지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하여 일본인의 토지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인 농업 이민과 지주가 증가하였다. 즉 조선 총독부는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하여 약탈한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본인이 경영하는 토지 회사나 한국으로 건너오는 일본인에게 싼 값으로 넘겨주어, 일본인들이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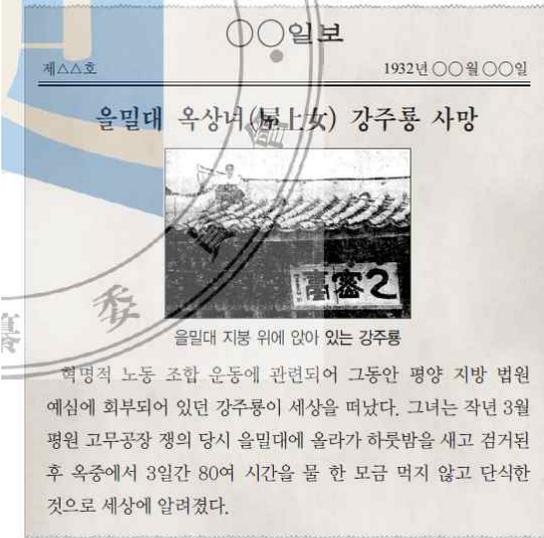
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 조사 사업은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소유를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왕실 궁장토와 종래 공전·역토·둔토·목장토 등 농민이 선조 대대로 경작하여 사유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농민의 권리가 형성되어 있는 토지를 역둔토라는 이름으로 국유지에 편입시켜 소유권이 불명확한 공유지나 국유지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났다.

결국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농민들이 토지 조사 결과에 불만을 갖고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부분 패소하였다.

또, 토지에 대한 지주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인정하고 농민이 오랫동안 누려 왔던 관습적인 경작권을 부정하였다. 그 결과, 수많은 농민이 토지를 잃었고, 기한부 계약에 따라 지주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소작인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토지를 상실한 농민들은 화전민이 되거나 간도나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③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일제는 전쟁으로 인해 식량이 부족하자 양곡 배급제와 함께 미곡공출을 실시하였으며(1940)

42. 다음 기사가 보도된 시기의 노동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을? [2점]



- <보 기>—
- ㄱ. 회사령이 폐지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 ㄴ. 비합법적 노동 조합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 ㄷ. 일제를 타도하자는 정치 투쟁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 ㄹ. 전국적 조직인 조선 노동 총동맹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③

* 혁명적 노동조합과 1930년대 노동쟁의

조선 총독부는 1910년 '회사령'을 설립하였다. 회사령은 조선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여 한국인의 회사 설립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한국인 노동자 수가 많이 않아 쟁의 건수도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 일본 자본의 원활한 진출을 도모하고자 조선 총독부는 회사령을 철폐하였다.

1920년대에는 회사령이 폐지되며 회사·공장이 늘어남에 따라 노동자가 점차 증가하면서 노동자 조직도 결성되었다. 당시 노동자는 민족 차별적인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 등 노예적인 노동 조건에 허덕이고 있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 조건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주장하는 노동 운동을 벌였다.

특히 노동자 농민의 공동 조직인 조선 노농 총동맹(1924)이 1927년 조선 노동 총동맹과 조선 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며, 노동쟁의와 소작쟁의 모두 전국적 조직으로 커지며 쟁의는 더욱 확산되었고, 1920년대 후반이 되자 사회주의 운동이 확산되자 노동자들의 계급 의식과 민족의식이 크게 높아지며 노동자의 단결과 권익 옹호를 위한 노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노동 쟁의가 크게 늘어났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노동 쟁의는 원산 노동자 총파업(1929)이었다.

노동쟁의, 소작쟁의와 공히 1920년대에는 경제적 투쟁(생존권 투쟁)에서 성장하여 일제가 농민·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자, 1930년대(대륙 침략 이후)에는 농민·노동자들이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비합법적 조합인 혁명적 농민 조합과 노동조합(적색조합)을 만들어 점차 항일 민족 운동(일제 타도)으로 발전해 갔다.

그러나 두 운동 모두 1938년 총동원령 체제 이후에는 소멸되었다

43. 다음 잡지를 발행한 종교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1점]



- ① 만세보를 발간하여 민중 계몽에 힘썼다.
- ②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 의식을 높였다.
- ③ 무장 항일 투쟁을 위해 의민단을 조직하였다.
- ④ 박종빈을 중심으로 새생활 운동을 전개하였다.
- ⑤ 사찰령에 맞서 민족 불교의 자주성을 지키고자 하였다.

정답: ①

* 일제하 천도교 활동

인내천(사람이 곧 하늘), 사인여천(남을 하늘 처럼 섬겨라) 등 인간 존중을 강조하는 동학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실패 후 이용구 등 일부 동학 교도들이 친일 활동을 하자(일진회), 손병희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여 동학의 전통을 계승하였다(1905).

1919년 3.1 운동 때에는 손병희, 최린 등이 민족대표로 저극 참여하였으며, 1922년 3월 1일 제2의 3·1 운동을 계획하여 자주 독립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문화적으로는 만세보를 창간하였으며(1906), 또한 개벽사를 설립하여 개벽(1920), 신여성(1923), 어린이(1923), 학생 등의 잡지를 간행하며 문화.계몽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일찍이 “어린이를 때리지 마라.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니라.”라고 강조한 동학의 2대 교주 최시형의 뜻을 이어받아 천도교에서는 소년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방정환이 활약한 천도교 소년회에서는 1923년 5월 1일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라는 잡지를 간행하였다.

그 외에도 보성학교와 동덕여학교를 경영하여 민족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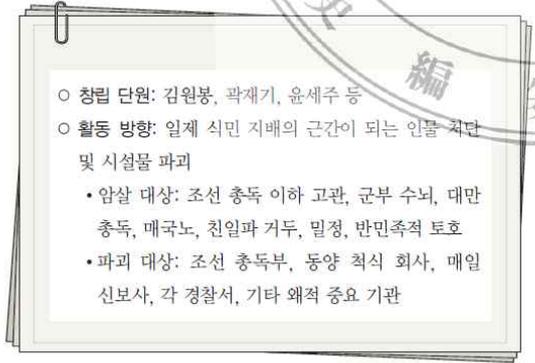
② 을사 5적 암살단을 이끌던 나철, 오기호 등은 1909년에 단군 신앙을 받드는 대종교를 창시하였다. 대종교는 국권 피탈 후 교단을 만주로 옮기고 많은 민족 학교를 설립하고 중광단 등 항일 무장 단체를 결성하였다. 중광단은 3·1 운동 이후 북로 군정서로 개편되어 적극적인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③ 불교계의 한용운은 일제의 사찰령(1911)에 맞서 조선 불교 유신론을 내세우며 불교의 혁신과 자주성 회복을 주장하였다.

④ 박종빈이 창시한 원불교(1916)는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립정신을 키웠으며 남녀평등을 내세웠다.

⑤ 1919년 북간도 지역의 천주교 계열의 인사들이 주도하여 항일 무장단체인 의민단을 창설하여 1920년 10월의 청산리 대첩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44. 다음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 ① 민족 혁명당 결성에 참여하였다.
- ② 조선 혁명 간부 학교를 설립하였다.
- ③ 신채호의 조선 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 ④ 단원 중 일부가 황푸 군관 학교에 입학해 군사 훈련을 받았다.
- ⑤ 침체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결성되었다.

정답: ⑤

* 의열단

의열단은 1919년 11월 만주 지린성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독립운동 단체로서, 김원봉, 윤세주 등이 이끌었다. 당시 만주와 중국 본토에서 조직된 독립운동단체들이 미온적이고 온건하다고 본 의열단은 직접적 투쟁방법인 암살과 파괴·테러라는 과격한 방법을 통해 독립운동을 해나기로 했다.

이는 신채호가 김원봉의 부탁을 받고 1923년 1월에 발표한 조선혁명선언(일명 의열단 선언)에 잘 나타나있다. 여기서 신채호는 일부 독립운동가들의 문화주의·외교론·준비론 등의 입장을 비판하고 민중에 의한 직접혁명과 평등주의에 입각한 독립노선을 제시하였다. 신채호는 일제의 타협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폭력적 민중혁명에 의한 일제의 타도라는 전술을 내걸었다.

이에 따른 김상옥(1923,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김익상(1921, 조선총독부 폭탄 투척), 나석주(1926, 동.척과 식산은행 폭탄 투척) 등의 의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의열단을 이끌던 김원봉은 이러한 개인 의거 활동의 한계를 느끼고 1925년 몸소 중국 황포 군관학교에 입교하였다. 이 학교에 포진된 공산주의 교수진의 영향을 받아 점차 김원봉과 의열단 지도부는 이후 노선을 바꿔 조선혁명간부학교(1932)를 세워 훈련시키고, 정당 조직(후일 1935년 민족혁명당 결성)과 군사 조직(후일 1938년 조선 의용대 결성) 형성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⑤ 1920년대 후반 이후 침체기에 빠진 임시 정부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김구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여 1932년 이봉창(일왕 폭탄 투척), 윤봉길의 의거(상해 홍구 공원 폭탄 투척)를 이루어내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45. 다음 담화문을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점]

저는 오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면서, 광주의 아픔을 씻어내고 그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분명히 말하거나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 정부입니다. 또한 문민정부의 출범과 개혁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입니다. 시대가 남겨준 양금과 한을 훌훌 털고 일어나 신한국 창조에 저 넓고 큰 길로 나섭시다.

- ① 개성 공업 단지가 조성되었다.
- ② 3저 호황으로 수출이 증가하였다.
- ③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삼백 산업이 발달하였다.
- ④ 경공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공업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 ⑤ 경제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었다.

정답: ⑤

* 문민정부 김영삼 정권(1993.2~1998.2)

노태우 정권(1988.2~1993.2) 하의 집권 여당 민정당은 여소 야대 국회로 인한 정국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할 목적으로 김영삼(민주당), 김종필(공화당)이 이끄는 두 야당과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을 창당하였다(1990). 이에 14대 대통령 선거(1992.12)에서 여당의 김영삼 후보가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 정변 이후 31년 만에 들어선 민간 정부(문민정부)임을 강조하며 개혁을 단행하였다.

지방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고(1995.6),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1993)하여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탈세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였다(1993). 신군부의 뿌리인 하나회를 해체하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였으며, '역사 바로 세우기'를 내세워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반란 및 내란죄로 수감하

였다(1995.11~12).

또한 1995년 12월 국회에서 5.18 광주시민항쟁을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하고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1997년 12월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도 제정하였다.

한편, 성급하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내세우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에 가입(1996)하는 등 시장 개방 정책을 실시했으나, 임기 말에 외환위기를 맞아 국제 통화 기금(IMF)에 의존하게 되었다(1997.12).

①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된 이후 후속조치인 개성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부터 입주)되며 남북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② 전두환 정권(1981.2~1988.2) 때인 1980년대 중반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을 지속하였다.

③ 1950년대 이승만 정권기에 6.25 전쟁 중에는 물론, 전후 복구 기간에도 미국은 많은 경제 원조를 제공했는데, 원조는 주로 식료품, 농업 용품, 피복, 의료품 등 소비재와 면방직, 제당, 제분 공업의 원료에 집중되었다(삼백 산업)

④ 박정희 정권은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하며 정부 주도,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면서 대기업을 육성·지원하였다. 1960년대의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경공업과 수입 대체 산업, 국가 기간산업 중심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46. 다음 연표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점]

○○○ 연보

- 1919년 신한 청년당 결성
대한민국 임시 정부 외무부 차장 취임
- 1933년 조선중앙일보 사장 취임
-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 자진 폐간
- 1944년 조선 건국 동맹 결성
- 1945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조직
- 1946년 (가)
- 1947년 서울 혜화동에서 피살

- ① 한국 민주당 창당
- ② 5·10 총선거에 참여
- ③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주장
- ④ 미군정의 지원으로 좌우 합작 위원회 조직
- ⑤ 남북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 참여

정답: ④

* 좌우 합작운동을 추진한 여운형

중도적 사회주의 독립운동가인 몽양 여운형(1886~1947)은 1918년 파리에서 만국 평화 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의 독립을 청원할 대표를 파견하기 위해 신한 청년당(1919)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견했고, 이듬해 상하이 임시 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 의정원 의원이 되었다.

1920년 고려 공산당에 가입, 이듬해 모스크바에서 열린 원동 피압박 민족 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와 중국의 쑨원과 협력하여 중국 혁명을 적극 추진하다 복역하기도 했으며, 중앙일보 사장으로 있다가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사직하기도 하였다.

1944년 일본의 패전을 예상하고 비밀 단체 조선 건국 연맹을 조직하여 위원장에 취임, 독립 운동을 전개했다. 이듬해 8월 15일 해방되자 건국 연맹의 기반을 확대하여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조직하고 이를 기초로

이 해 9월 조선 인민 공화국을 선포, 스스로 부주석이 되었으나 우익 진영의 반대를 받은 위에 미 점령군 당국의 인정을 받지 못해 실패했다. 12월 인민당을 조직, 이듬해 29개의 좌익 단체를 규합하여 민전(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 의장단의 한 사람에 선출되었으나 정책 노선이 명확하지 못해 조직을 장악하지 못했고 반대파 좌익세력에게 밀려 탈퇴하였다. 또, 1947년 5월 근로인민당을 조직하였으나 극좌·극우 양측으로부터 소외당하였다.

한편 중도 우파인 김규식과 좌우합작위원회를 결성(1946.7)하고 미군정의 지원 하에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던 중 극우파 한지근에 의하여 1947년 7월 암살되었다.

미국의 트루먼 독트린(공산주의에 대결)으로 인한 대외정책의 변화(냉전 구도)와 여운형의 죽음, 2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로 인해 결국 좌우합작운동을 실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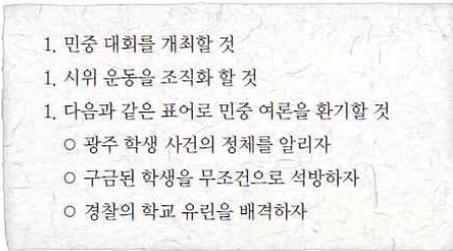
① 송진우, 김성수 등의 지주, 자본가 출신 우파 민족주의 세력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 지지를 선언하고 한국 민주당을 만들었다(1945. 9.).

② 최초의 총선거인 5.10 총선거는 1948년에 있었고, 여운형은 1947년에 죽었다.

③ 1차 미·소 공동 위원회(1946. 3~5)가 무기한 중단되자 좌우 세력의 대립은 더욱 날카워졌다.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고 지지 세력을 모아갔다(정읍 발언: 1946.6).

⑤ 유엔 소총회가 남한 단독 선거를 치르겠다는 방침을 세우자(1948.2), 분단을 우려한 김구, 김규식 등은 이를 막고자 북한의 김일성, 김두봉 등과 평양에서 '남북 제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연석 회의'(남북협상)를 개최하였지만 실패하였다(1948. 4.).

47. 다음 결의문의 발표를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 ② 6·10 만세 운동을 계획하였다.
- ③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을 주도하였다.
- ④ 행정 기능과 군사 조직을 갖추었다.
- ⑤ 기회주의 배격과 민족 단결을 내세웠다.

정답: ⑤

* 광주 학생 항일 운동(1929.11)을 후원한 좌우합작단체 신간회(1927~1931)

1920년대 중반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 세력은 타협론자들의 자치 운동을 경계하며,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여 이를 저지하려 하였다. 치안유지법(1925)으로 탄압받는 사회주의 세력도 1926년 '정우회 선언'을 발표하여 이에 호응하여 결국,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뛰어넘어 민족 협동 전선(민족유일당)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아 합법적 단체인 신간회가 창립되었다(1927. 2.)

신간회는 기회주의(타협론: 자치론) 배격과 민족 단결, 한국인 본위의 교육 실시, 착취 기관 철폐 등을 주장하였고, 사회 운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지원, 갑산 화전민 학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운동을 전개하였다. 또, 1929년 11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자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하고, 조사 결과를 발표할 민중 대회를 준비하였으나, 경찰의 탄압으로

좌절되었다.

신간회는 민중 대회 사건(1929.12) 후, 새 집행부의 투쟁 방법을 둘러싸고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대립이 생겨 해체되고 말았다. 하지만, 신간회는 국내 민족 운동 세력의 역량을 총결집시켰다

① 국권 회복과 공화 정치 체제의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은 비밀 조직인 신민회(1905~1911)는 국내에서 문화적, 경제적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면서 점차 국외에서 독립군 기지의 건설 등 군사적 실력 양성을 꾀하였으나, 105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② 사회주의자, 천도교, 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들은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6.10 만세운동(1926)을 계획하였으나, 사회주의자들이 추진한 계획은 사전에 발각되었고 학생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위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③ 실력 양성의 운동의 일환으로 한국인을 위한 고등 교육 기관인 민립 대학 설립 운동이 192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상재, 한규설 등은 1922년 민립 대학 기성 준비회를 결성하였다. 전국적인 호응 아래 1923년 3월에는 조선 민립 대학 기성회가 조직되어 '한민족 1천만이 한사람이 1원씩'이라는 구호와 모금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감시와 탄압으로 모금 운동이 쉽지 않았고, 1920년대 중반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모금 운동이 중단되었다

④ 자유시 참변(1921.6) 이후 독립군은 연해주에서 다시 만주로 이동하여 각 단체의 통합운동을 추진하여 참의부(1923), 정의부(1925), 신민부(1925)의 3부를 조직하였다. 3부는 모두 군사기능과 행정기능을 갖추었다.

48. (가)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점]

<사진으로 보는 (가)>



- ① 유신 체제가 붕괴되는 계기가 되었다.
- ②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를 반대하였다.
- ③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되는 결과를 낳았다.
- ④ 허정 과도 내각이 성립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신군부의 비상 계엄 확대에 저항하여 일어났다.

정답: ④

* 4.19 시민혁명(1960)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 정권은 집권 연장을 위하여 노골적인 부정 선거를 자행하였고(3.15 부정 선거), 이에 항의하는 학생과 시민의 시위(3.15 마산 시위, 4.18 고대 학생 시위)를 폭력으로 진압하였다. 마침내 국민의 분노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4·19 혁명이 일어났다(경무대 앞 시민, 학생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발포로 130여명 사망).

4월 25일에는 서울 시내의 대학교수단이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시위하였고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4월 26일 이승만은 결국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날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하였다. 이로써 이승만 정부는 붕괴하였다(허정 과도정부 수립).

① 박정희 유신 철권 통치 하에서도 양심적 지식인, 학생, 종교인 등은 이에 저항하며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마침내 박정희 대통령은 10·26 사태로 피살되었고, 유신 체제는 종말을 고하였다(1979).

②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계획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학생과 시민들은 회담 진행 과정에서 대일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우리 측이 지나치게 양보한 굴욕적인 외교라며 회담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1964년 6·3 시위). 정부는 비상계엄을 실시하여 이를 억제하고 1965년 한·일 협정을 체결하였다.

③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하에서도 계속된 민주화 요구는, 1987년 박종철 고문 사망 사건과 4·13 호헌 조치를 계기로 6월 민주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직선제 개헌과 민주 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결국, 정부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여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고, 여야 합의에 의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이 마련되었다.

⑤ 10.26 사태(1979)로 박정희 유신 정권은 붕괴되고 국민은 민주화를 요구하였으나 (1980년 서울의 봄), 12·12 사태(1979)로 군사권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은 이를 억압하였다. 신군부 세력은 계엄령 철폐와 김대중 석방을 요구하며 시작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무장 군인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5·18 민주화 운동은 비록 실패하였지만, 1980년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되었다.

49. 다음 정부 시기에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옳은 것은? [2점]

〈수행 보고서〉

주제: ○○○ 정부 주요 사건 선정하기



베트남 파병



경부 고속 도로 준공



유신 헌법 공포



수출 100억불 달성



부·마 민주 항쟁

- ① 교복 자율화 정책에 기뻐하는 학생
- ② 프로야구 개막식을 보러가는 회사원
- ③ 새마을 운동으로 지붕을 개량하는 농민
- ④ 금강산 관광을 떠나는 남한 단체 여행객
- ⑤ 농지 개혁으로 지가 증권을 발급 받는 지주

정답: ③

* 박정희 정권기(1963~1979)의 사회 모습

베트남 파병(1965~1973), 경부고속도로 준공(1970), 유신헌법 공포(1972), 수출 100억불 달성(1977), 부마 민주항쟁(1979)은 모두 박정희 정권기의 주요 사건들이다.

①, ② 전두환 정부(1980.8~1982.2)는 언론 통제, 정치 활동 규제 등 민주화를 억압하면서 해외 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중.고생 교복 자율화(1983), 프로야구단 창단(1982) 등의 국민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③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하며 정부 주도, 수출 지향의 공업화 정책을 펼쳐나갔다. 이러한 공업화 전략에 따른 공업의 눈부신 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 개발과 소득 증대를 위해 1970년대에 들어서는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였다. 특히, 새마을 운동은 농촌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④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또, 금강산 관광(1998)과 경의선 연결(2000.9~2002.12. 남측 완료), 개성 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부터 입주), 남북 이산 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

⑤ 남한의 농지개혁(1950~1957)은 이승만 정권기인 1949년 6월에 제정·공포되고 1950~1957년에 시행되었다. 농지개혁법의 구체적 내용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3정보 이상의 농토(소작인이 경작하는 농토)에 한하여 정부가 5년 연부보상의 조건으로 소유자로부터 유상취득하여(대신 지가 증권 발급) 농민에게 분배해 주고, 농민으로부터 해당 농산물 생산량의 150%를 5년 동안 정부에 연부로 상환하게 하는 이른바 유상몰수·유상분배 방식이었다.

5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적인 방북 임무를 대과 없이 마치고 지금 귀국했습니다. 이번 저의 방북이 한반도에서의 평화, 남북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우리 조국의 통일로 가는 길을 닦는데 첫걸음이 됐으면 더 이상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6월 15일에 발표한 남북 공동 선언서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

- 대통령 방북 성과 대국민 보고 -

<보 기>

- ㄱ.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한다.
- ㄴ.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 ㄷ.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한다.
- ㄹ. 연합제안과 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 6.15 공동 선언(2000)

남북 간에 통일에 대해 합의된 문서는 3가지가 있다.

7·4 남북 공동 선언(1972): 1970년대에 들어와 닉슨 독트린(1969, 미국의 불개입주의 천명) 발표 이후 냉전 체제의 완화, 남한의 경제 발전 등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남북 교류를 제의하고(1970년 8.15. 선언, 남북한 선의의 경쟁), 남북 간에 이산 가족 찾기 운동을 위한 적십자 대표의 예비 회담을 열었다(1971.9~1972.8). 또, 서울과 평양에서 7·4 남북 공동 성명이 동시에 발표되었다(1972).

이 성명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이후 통일 논의의 기본 원칙이 되었다. 이 발표로 남북 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직통전화(핫라인) 가설과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남북 기본합의서(1991): 노태우 정권기인 1990년대에 들어와 급격한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남한의 적극적인 북방 외교 정책이 추진되었다. 남북한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으며(1991.8),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문화, 체육의 교류도 이루어졌다.

곧이어 남북 간의 잠정적이고 특수한 관계를 인정한 남북 기본합의서(1991.12)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 선언(1992.1)이 채택되기도 하였다.

6.15 공동 선언(2000):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와 민간 차원의 교류가 크게 확대되었다. 마침내 평양에서 정상 회담(김대중-김정일)이 이루어져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2000).

이 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앞으로 이 방향에서 자주적으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화해 협력 정책에 힘입어 금강산 관광 사업(1998), 경의선 복구 사업(2000~2002), 개성 공단 건설(2000년 합의, 2004년부터 입주), 이산가족 상봉 등이 실현되어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화해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